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403**
JULY 2025 **7**



Cover Story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COLUMN 흰여름의 미술관
여기. 예술 예술의 영토

GLOB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024-2025
CANADA-KOREA
Year of Korean Culture
CANADA-CORÉE
세한다-한글
한글다-세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두 광대의 여정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

Glob

2025. 7. 16. | 수 | 11:00,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협력 | ASSITEJ
Korea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ARS 1번)

티켓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입장연령 | 36개월 이상 *추천연령 6세 이상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 Arden Chanter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
Lumens

2025. 7. 19. | 토 |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ARS 1번)

티켓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입장연령 | 36개월 이상

NOL ticket 1544-155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퇴근길음악회, 국악힐링타임

Program

국악관현악
청청

소금 협주곡
파미르고원의 수상곡

국악기로 연주하는 Jazz 명곡
노들강변 - St.Thomas

소리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시연가

하모니시스트 전제덕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Bésame mucho - La cumparsita

인디언 쿠스코 (남미 에콰도르 민속 공연팀)
El cóndor pasa - Linda bella mujercita - El Dorado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사회 노주원

소금 조은경

소리 박성희

첼로 이일세

하모니카 전제덕

남미 민속 공연팀 인디언 쿠스코

2025. 7. 22.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제11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2 0 2 5 EULSUKDO O P E R A FESTIVAL

7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7.5.(토)
사랑의 묘약
가에타노 도니체티

7.12.(토)
리골레토
주세페 베르디

7.19.(토)
팬잔스의 해적들
아서 쉘리번 & 윌리엄 길버트

7.26.(토)
요정의 여왕
헨리 퍼셀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오페리움 한울, 아트내상스,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예매 20% 할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료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의 051.220.5811~14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Vol.4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별이
빛나는

쌈

강

이정운의
댄스살롱

티켓 전석 2만 원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2025.7.11^{FRI} 19:30 – 12^{SAT}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JULY 2025

VOL. **403**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고객지원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이아라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8 Column
흰여름의 미술관
- 10 여기, 예술
예술의 영토
- 12 Cultural Issue
오르간, 신의 숨결을 닮은 소리
- 14 무대 뒤 사람들
음향감독 이창훈
- 16 현대미술산책
다다, 예술을 전복하다
- 22 Cover Story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 26 Preview
- 34 문화가화제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36 Review
- 40 Program Guide
- 49 New Book
- 50 BSCC News
- 52 객석에서
- 54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한여름의 미술관

바다와 빛, 그리고 부산의 공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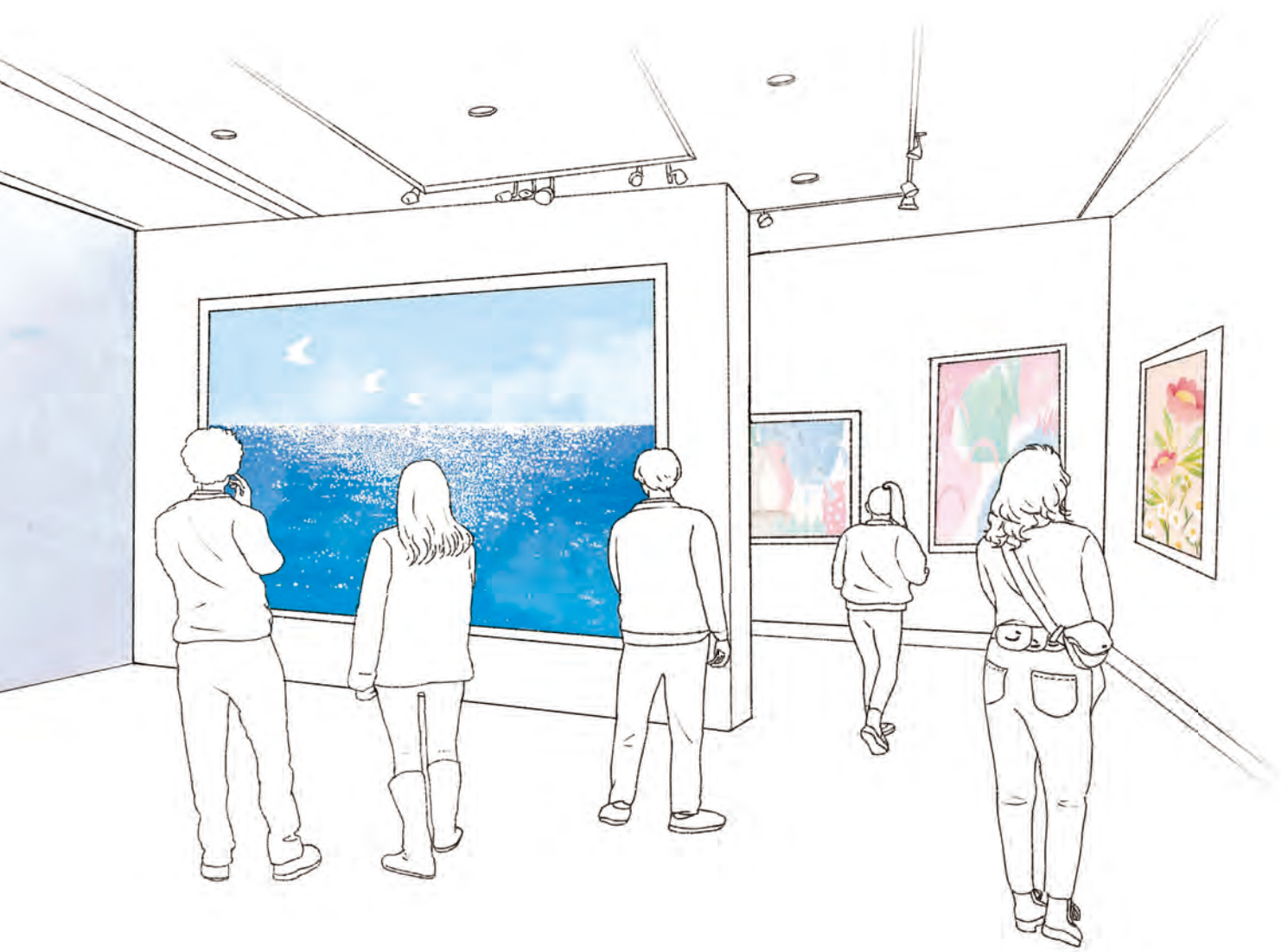
글 **김성필** 국립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한여름의 부산은 유난히 눈부시다. 해운대 바다를 가로질러 들어오는 햇빛은 도시 전체를 유리처럼 투명하게 만들고, 그러한 계절감은 미술관에서도 고스란히 감지된다. 내게 여름 미술관의 기억은 바다를 끼고 걸던 어느 오후, 부산현대미술관 앞 습지의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던 장면으로 시작된다. 바깥의 열기를 피해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시각의 감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여름의 미술관이 단지 전시를 보는 공간이 아닌, 감각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피난처'이자 '회복의 공간'으로 다가온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의 미술 공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시 콘텐츠는 물론 공간 구성에서도 관람객의 감각적 몰입을 유도하려는 흐름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F1963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빛, 소리, 냄새,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다감각적 전시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시각 중심의 전시를 넘어, 촉각적이고 청각적인 감각이 결합된 감성적 몰입(sensory immersion)을 지향하는 현대 예술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며 도시와 생태의 관계를 질문하고 있고, 여름철 기획전은 이러한 감각 기반 전시 흐름을 더욱 밀도 높게 보여주며 관람 자체가 하나의 '경험 디자인'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전포동의 한 독립 전시 공간에서 마주한 설치미술 전시였다. 환풍기 소음과 햇살, 오래된 창틀 사이로 들어온 빛이 작품과 섞이면서 공간 전체가 일종의 '감각적 현상'처럼 느껴졌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니라, 그 공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수행적 감각(performative sensibility)이었다. 다시 말해, 관람자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방식이며, 이는 예술이



행위로서 작동한다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은 부산의 미술이 갖는 중요한 정체성이다. 해운대 바다미술제, 광안리의 미디어파사드 전시, 오륙도 일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은 모두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예술적 공간으로 재해석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예술로 볼 수 있다. 장소특정성은 작품이 단지 어디에 놓이는가가 아니라, 그 장소의 물리적·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예술적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그런 점에서 예술과 공간, 자연과 기술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작가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전시는 물론, 지역의 역사와 감성을 복원해내는 전통 매체 작

가들의 작업도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대형 전시장뿐 아니라 독립 공간, 카페, 빈 상가, 폐건물 등에서 '자기만의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저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결국, 여름의 미술관이란 단순한 피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감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플랫폼이며, 예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정이다. 부산처럼 계절과 자연, 도시가 긴밀히 맞물린 지역에서는 미술이 단순한 '시각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적 감각 구조'로 기능할 수 있음을 여름의 미술관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올해 여름에도 나는 다시 미술관을 향해 걷게 될 것 같다. 그 안에서 다시금 '빛'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술의 영토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예술의 확장-기술과 함께 한 예술의 영토

구석기시대 동굴의 암각화, 중세 교회의 종교화, 르네상스 시기 이후의 초상화와 풍경화, 사진 작품, 영화, 비디오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흐름을 떠올려보자. 이 흐름은 예술이 평면에서 공간, 시간, 가상으로 그 영토를 넓혀온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만든 힘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고대 동굴 벽화와 중세 제단화는 선으로 구성된 평면 세계를 담고 있으며, 대상의 상징성이 표현의 주요 목적이었다. 즉, 사슴이라든지, 성경 속의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지오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는 기하학을 응용한 초기 원근법을 도입해 그림 속에 3차원적 공간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회화는 입체성을 가진 세계로 구축될 수 있었는데, 이를 더욱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17세기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활용하였다. 이 장치는 바깥 풍경을 작은 구멍을 통해 암실 내부 벽에 거꾸로 투영하는 장치로, 아직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능은 없었다.

베르메르는 정확한 원근과 구도를 표현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여 <우유를 따르는 여인>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1826년 세계 최초의 사진 <르 그라의 창에서 본 풍경>이 조제프 니세포르 니엵스(Joseph Nicéphore Niépce)에 의해 촬영되었으나 1839년 루이 다게르(Louis-Jacques-Mandé Daguerre)의 다게레오 타입이 발명되면서 비로소 상용화된 사진법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사진은 초상화나 풍경화에서 다뤄온 '현실의 모방'이라는 회화의 전통적 기능을 빠르게 전유하게 된다. 이 시기까지 예술은 주로 '공간'을 담아낼 수 있었다.



부산불꽃축제_CHATGPT로 회화로 전환

1890년대 예술이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확장되는데, 영화의 출현이 그 계기다. 1895년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하면서 <기차의 도착>, <뤼미에르 공장의 출근>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정지되어 있던 이미지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예술은 시간의 영역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960년대 비디오카메라, TV 모니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예술적으로 활용한 비디오 아트가 등장했고,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센서, AR, V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

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가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로 작동되면서 예술은 관객과의 관계라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예술이 작품 ‘안’에 공간과 시간을 담는 것을 넘어 작품 ‘밖’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된 것으로 예술의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AI 시대 예술 창작자의 개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최근 예술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기술적 변화는 인공지능(AI)의 등장이다. 1950년대 영국의 해롤드 코헨(Harold Cohen)은 초기 AI 드로잉 프로그램 AARON을 개발하면서 알고리즘 기반 예술을 시도했으나, 표현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후 2015년 구글에서 DeepDream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이미지를 재해석하며 예술을 생성하는 등 딥러닝 기반 예술 창작이 본격화되었다.

영화 <바이센테리얼맨>(2000), <Her>(2014),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2018),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같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면서 과학기술이 예술에 미치는 관심을 드러내는 한편, AI 스스로가 창작자로 활동하는 작품도 늘어나고 있다.

연극 <사요나라>(2010)에 출연한 로봇 배우 제미노사이드F, <에드몬드 드 벨라미의 초상화>(2018)를 제작한 AI 오비어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2022)을 제작한 AI 제이미 M 앨런, <shooting star>(2022), <마음을 주세요>(2023)를 작곡한 AI 뮤지션 에이미 문, 그리고 시집 『시를 쓰는 이유』(2022)를 발간한 AI 시인 시아 등이 그들이다. 2021년 체코 프라하에서 상연된 다니엘 흐르벡(Daniel Hrbek) 감독의 연극 <AI: When a Robot Writes a Play>는 OpenAI GPT-2 기반의 THEaiTRobot 1.0(체코의 THEaiTRE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연극 대본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하여 희곡 대사를 생성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 중심 서사를 해체했다. 이처럼 인간 창작자와 AI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창작의 정의와 저작권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2024년 미국 테네시주는 ELVIS Act(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를 발효하였다. 이는 AI

딥페이크 시대에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최초 법률이다.

앞서 2021년 유네스코에서도 AI 윤리 권고안을 채택하며 윤리, 투명성, 데이터 보호 원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은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과학과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미학을 생산하는 주체로 부상하며, 예술의 담론을 변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 문명과 자연 간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 등장했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데이터의 물질성 등은 어쩌면 AI 창작자들을 옹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저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기술 복제가 예술을 의식(儀式)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고 보았다. 복제 과정을 통해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이에 유비시켜 보면 AI는 기존 작품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서사를 만들어내며, 생성한 작품은 원본의 고유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AI 작품은 복제이면서도 독립적인 창작물이 된다. AI가 생성한 작품은 관객의 반응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한편 벤야민은 예술작품의 여기와 지금으로서, 곧 예술작품이 있는 장소에서 그것이 갖는 일회적인 현존재(Aura)로서, 그 작품이 존재하는 동안 처했던 역사가 이루어져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진품성이란 그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까지 포함하여,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부터 전승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괄 개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지능 창작물도 이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진품이자, 아우라를 지닌 예술로 볼 수 있을까?

예술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예술적 사유와 실천과제 역시 끊임없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오르간, 신의 숨결을 닮은 소리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 안에서, 침묵을 가르며 천장에서 내려오는 듯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간과 신앙, 예술과 기술이 하나로 직조한 소리의 건축물이자, 서구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 낸 ‘신성한 공명체’이다.

유럽의 성당에는 오르간이 있고, 그곳에는 음악가들이 남긴 시간이 담겨 있다. 바흐(1685~1750)는 독일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의 지휘자이자 오르간 주자였다. 그가 썼던 건반 위에 오늘의 오르가니스트가 손을 얹어 바흐의 오르간곡을 연주할 때, 과거의 오늘이 음악으로 대화하는 그 순간은 어떠할까?

건축물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음향

오르간이 성당에 설치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음향적 특성 때문이다. 오르간은 수백 개의 관(pipes)들을 공기로 울려 소리를 내는 관악기다. 10~12세기 로마네스크와 12~16세기 고딕 건축 양식의 성당들은 천장이 높고 석재로 지어져 그 안에서의 울림과 잔향이 길다. 이러한 공간은 말을 전달하는 데에는 불리하지만, 장중하고 지속적인 음색을 가진 악기에는 최적이다.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오르간은 ‘공간 전체가 울리는 경험’을 만들어냈고, 이는 곧 신의 존재를 청각적으로 체험하는 감각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음악은 예술을 넘어선, 신에게 봉헌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였다. 그중 오르간은 ‘천사의 노래’를 대변하는 악기로 여겨졌다. 고대부터 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음악은 우주의 조화(cosmos)를 담은 예술로 간주했고, 오르간은 그 조화를 보여주고 실현하는 악기였다.

성가대가 인간의 언어로 신을 찬양할 때, 오르간은 그



부산콘서트홀 한 벽면에 세워진 9미터의 오르간

너머, 인간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감정을 밀어 올리는 존재이기도 했다. 13세기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르간은 인간의 목소리를 보완하며 신의 찬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라고도 했다.

기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품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오르간 제작 기술은 기계공학, 수학, 음향학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오르간은 단순한 악기라기보다 ‘움직이는 건축물’에 가까운 존재였다. 오르간은 일반적인 악기들과 달리 크기가 방대하고, 성당이나 콘서트홀의 벽면 전체를 차지한다. 파이프(관)의 개수는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고, 구조적으로는 목공, 금속공, 공기역학, 전기설비, 음향공학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제작(making)’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building) 일에 가깝다. 그래서 오르간 제작자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 때문에 오르간 제작자

를 ‘오르간 빌더(organ builder)’라 부른다. 부산콘서트홀의 파이프 오르간은 높이 9미터, 4,423개에 달하는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프라이부르거 오르겔바우사(社)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복잡성과 정교함은 인간의 손이 만든 가장 신성한 기계로 여겨졌고, 성당에 오르간이 있다는 것은 곧 해당 교회 공동체가 고도의 기술, 예술, 신앙을 모두 갖춘 문화 중심지라는 상징이었다.

더불어 중세와 근세의 교회는 단지 종교 기관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이었다. 오르간은 이 권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소리의 웅장함은 교회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었으며, 왕정과 귀족은 자신들의 부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성당에 거대한 오르간을 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르간은 교회 권위와 세속 권력이 겹쳐지는 지점에 놓인 도구이기도 했다.

종교의 예술을 넘어

오르간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공간의 전유물이었다. 교회나 성당처럼 종교적 공간에서만 접할 수 있었고, 음악이라는 맥락보다는 의식과 제의의 맥락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오르간이 점차 성당을 벗어나 콘서트홀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오르간 음악이 하나의 음악적 독립 장르로서 재정립되었음을 뜻하며, 연주회 문화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

한국에는 유럽의 유서 깊은 대성당이 없다. 하지만 롯데콘서트홀, 부천아트센터, 부산콘서트홀 등 새로 지어진 공연장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유럽음악의 전통과 정통성을 상상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르간이 없는 공연장에서는 쉽게 기획할 수 없는 ‘오르간 시리즈’로 차별적인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다. 게다가 부산콘서트홀에 오르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악기의 확장이 아닌 문화적 기획의 분산과 지방 음악 인프라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수도권 청중이 대형 오르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르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클래식이 서울과 특정 지역만의 특권이 아님을 상징한다.

부산에서 펼쳐질 오르간의 향연

개관 페스티벌의 열기가 6월의 부산콘서트홀을 장식했다면, 오르간 공연이 축제의 온기를 이어간다. 7월 8일 오전 11시, 부산콘서트홀에서는 ‘HELLO 오르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공연 제목처럼 부산콘서트홀의 오르간이 관객에게, 혹은 관객이 오르



오르간의 과학을 만나보는 ‘HELLO 오르간’

간에게 ‘헬로우!’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이다. 공연에서는 오르간의 과학적 특성을 바흐·생상스 등의 음악과 다양한 곡과 이야기로 풀어내며, 오르간을 ‘거대한 음악실험실’로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오르가니스트 유아라와 과학자 민태기가 함께 한다.

7월 12일에는 ‘파이프오르간 시리즈’의 첫 공연이다. 오르가니스트 크리스티안 슈미트는 바흐·헨델·멘델스존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과 루브리히·슈나우스 등 낯설면서도 새로운 작품을 통해 오르간 소리를 들려준다. 9월 10일 올리비에 라트리, 10월 11일 켄 코완, 11월 28일 토머스 트로퍼가 이 시리즈를 이어 나간다.

그 외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파이프 오르간 인 빈야드’라는 제목으로 ‘오르간 교향곡’을 선보인다. 이 곡은 생상스의 교향곡 3번의 별명으로, 오르가니스트 신동일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현대의 도시에서 오르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소리, 하나의 건축적 정신, 하나의 종교적 미학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다. 특히 유럽의 오르간 음악이 형성해 온 역사적 층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콘서트홀에 오르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악기 도입’이 아니라, 음악과 신성, 예술과 도시가 맺는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왜곡없이, 소외없이 소리 전달

음향감독 이창훈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확성기도 스피커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을 전했을까? 갈릴리 호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어느날에는 장정만 5천 명이었다 하니, 가족들을 합치면 적어도 만 명은 넘었으리라. 예수의 목소리가 중저음에 널리 퍼지는 좋은 목소리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올라섰을 때는 물 표면이 목소리를 잘 전해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언덕 위에 사람들을 앉히고 아래쪽에서 말씀하셔서 잘 전해줬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제자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반복하여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천 년 전 모습이라 상상일 뿐이고 성경 기록에 의해 추정할 뿐이겠지만 그 어떤 환경보다도 복음에 목말라 있던 민중들의 간절함이 가장 큰 증폭장치였으리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메시아의 메시지를 한 개라도 놓칠까 봐 숨죽이며 집중하지 않았을까? 고난도 컸겠지만, 그 인기도 BTS 못지않았을 것 같다는 상상으로 해본다. 노래도 한 자락 하셨으면 좋았겠다.

옛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소리를 참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리를 잘 듣다 못해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공해처럼 밀려드는 터에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온전히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든다. 이제 우리 부산도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크고 작은 공연장들이 매일같이 아름다운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 문을 연 '부산콘서트홀'은 시민들에게 더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는 곳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소리들은 어떻게 우리 귀에 닿게 되는 것일까? 전기와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공기의 흐름에 의존했을 것이고, 그것을 증폭하기 위해 원형극장을 잘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해야 했겠지. 지금은 마이크로 입력된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믹서로 모였다가 앰프를 통해 스피커로 나가는 것일텐데,

이 소리와 관련한 기기들이 공간에 따라 또 공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어야 한다. 유무선 마이크가 가수와 악기에 저마다 자리 잡아야 하고, 적절한 출력의 스피커가 적당한 곳에 잘 배치되어야 관객이 이 소리들을 무난하게 듣는다.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있었다면 공연에 대한 평가는 혹독해질 것이다. 공연에서 음향처럼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역할이 또 있을까? 공기처럼 당연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쉰다.

1996년부터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애써온 이창훈 음향감독을 만났다. 햇수로 30년, 강산이 세 번 변할 동안 부산의 공연장들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옛날에 비하면 여러모로 여건이 좋아진 편입니다. 공연장에도 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담당자라며 막무가내로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를 마술사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는 이제 고급화되고 디지털화되었습니다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왜곡 없이 또 소외 없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간혹 소리를 더 크게 혹은 아름답게 바꿔주는 것이 음향의 역할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음향장비를 사용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 최고의 음향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지 몰라도 계속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제 일이자 삶입니다.” 사용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화장을 했으나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조미료를 듬뿍 쳤으나 자연의 맛처럼 느껴지는 것... 어쩌면 사기이며 또 최고의 경지이겠다. 실은 그동안 만난 ‘무대 뒤 사람’들은 다 자신이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런 역할들이 표나지 않은 채 공연을 무사히 마치면 그것으로 족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무대 앞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그것이 보람이었다. 이창훈도 그런 사람이다.

기존의 공연장은 기본적인 음향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덧붙이면 된다. 장비를 적게 써야 더 좋은 소리가 날지 더 많이 써야 할 지 판단하는 사람이 음향감독이다. 대체로 음향감독의 자리는 맨 뒤쪽 가운데. 여러 장비들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감독이 슬쩍 전해주는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음향감독의 앞자리, 그러니까 맨 뒷자리의 가운데라고 한다. 미세한 차이겠지만 결국 음향감독이 듣기에 가장 좋은 소리로 컨



트롤하기 때문이라고. 물론 배우나 연주자의 표정까지 살피고 싶은 관객의 욕구에선 다소 떨어진 팀이겠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보던 R석과는 조금 다르니, 한 번 시도해 볼 만 하리라. 그 기준이라면 좌우로 치우친 좌석은 좋지 않은 자리 아니겠느냐고 아는 척을 하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이리저리 잘 배치하였으니 다 좋은 자리입니다. 결국은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잘 피해가신다.

30년 업력에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한데, 아직 다른 팀이 잘 작업한 공연장에 가면 가슴이 뛰고 또 샘이 나서 더 배우고 더 노력하는 천상 음향인이다. 이젠 대학에서도 ‘음향제작’이 전공으로 개설되기도 하니 훌륭한 음악감독들이 세상에 많이 배출되리라. 이창훈을 비롯한 일군의 음향감독들이 부산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더욱 바쁘게 아름다운 소리를 실어 나르기를 바라본다. 우리는 뒷자리 음향감독의 콘솔 앞자리를 한 번은 탐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헌 것은 이천년 전 복음을 갈구하던 민중들의 간절함처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마름이겠다. 귀를 종긋 세우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한 번 들어볼 양으로 집중해보자.

다다, 예술을 전복하다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은 ‘다다(Dada)’의 자손이다. 다다는 ‘현대미술은 이상하고, 기괴하다’라는 인식을 생성한 가장 큰 주역이며, 다다이스트들은 장르와 장르, 삶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평범한 물건으로 이루어진 설치미술, 관람자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발적인 작품, 예술가의 희한한 퍼포먼스 등 현대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은 다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다다’를 모르고서는 현대미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다를 알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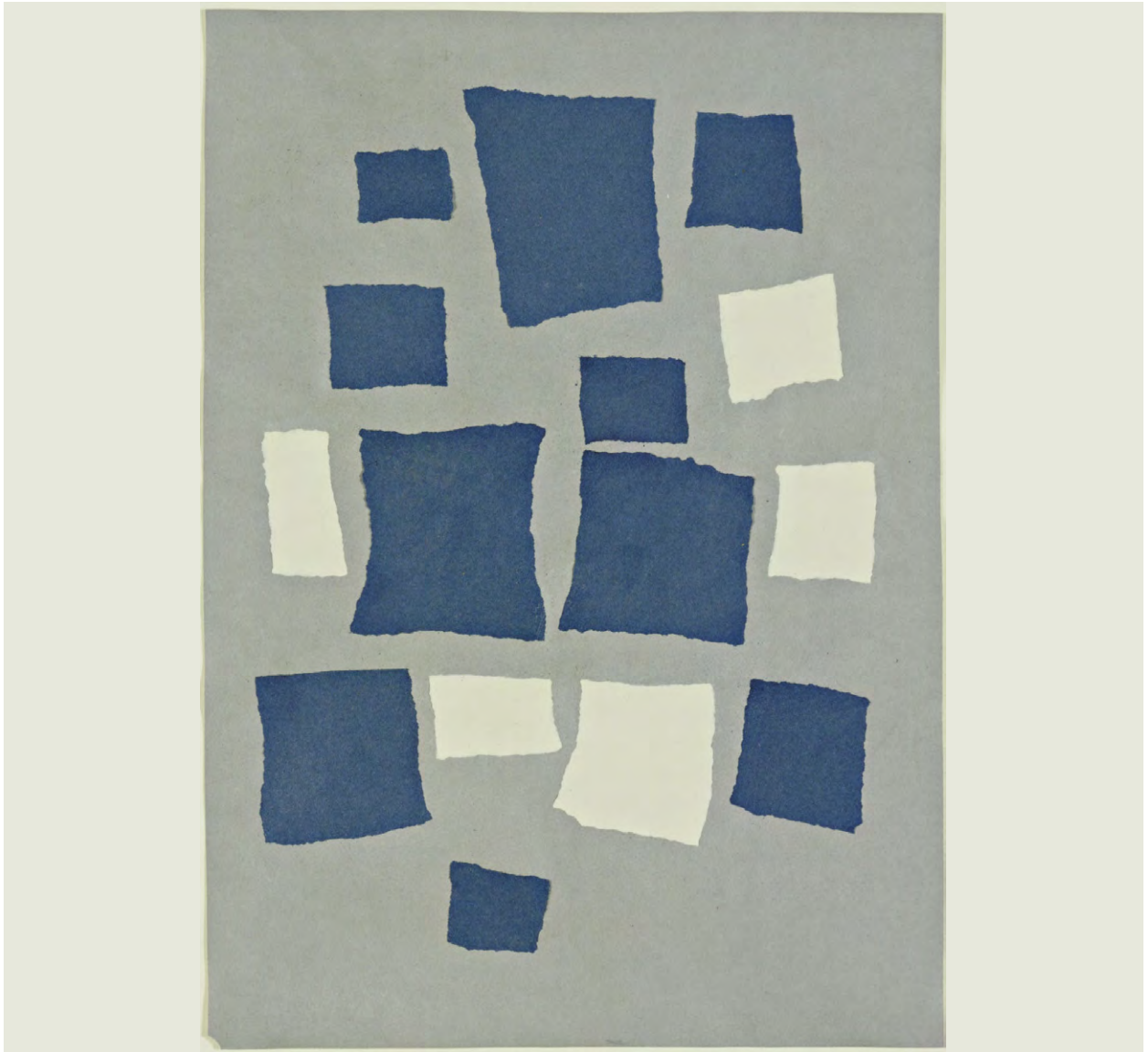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독일의 청년 시인, 후고 발(Hugo Ball, 1886~1927)은 반전을 외치며 병역을 거부하고는 중립국 스위스의 취리히로 갔다. 발(Ball)은 풍자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했던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의 이름을 따서 ‘볼테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그러자 전쟁을 일으킨 기독교, 나아가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인간 이성과 서양문명에 배신과 불신을 느낀 무리가 카바레 볼테르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주로 문학가, 무용수, 화가, 음악가 등 직업도, 국적도 다양한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볼테르의 예술가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시를 낭독했는데 그것은 기존 사회와 예술계에서 볼 수 없었던 괴상한 것들이었다. 시인 차라(Tristan Tzara, 1896~1963)는 신문에서 아무렇게나 오려낸 단어를 이어 붙여 횡설수설에 가까운 시를 지었으며, 발(Ball)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대신, 건반을 문자 그대로 두드렸다. 음악은 소음에 가까웠고, 배우와 뮤지션들은 장르가 모호한 공연을 하다 말

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관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괴짜들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었다. 서양문명이 그토록 신봉하던 계몽주의와 인간 이성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결론적으로 1,7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낸 최악의 전쟁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우연히 죽어갔다. 세상과 삶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앞에서 인간은 세계에 대한 지독한 환멸감을 느꼈다. 다다이스트들은 현실도피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기행(奇行)은 오히려 지옥 같은 세상을 직시한 결과이며 자신이 마주한 세계에 대한 적절한 예술적 대응이었다.

볼테르의 예술가들은 사전에서 우연히 ‘다다’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다다는 프랑스어로 목마(木馬), 독일어로 작별 인사, 루마니아어로 ‘응, 그렇고말고’를 뜻하며, 아이가 웅얼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실상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 자신들의 이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합리성과 논리를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나아가 합리적 인간을 추구하는 서양문명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이렇게 다다는 기존 사회, 예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반사회, 반예술을 표방하였다. 반예술을 주장하는 다다이스트들은 비이성, 우연성, 상상, 일상 등 합리성과 그것을 근거로 한 서양 고전주의 미술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이성적인 것과 우연성을 예술의 주제, 표현, 재료로 등장시켰다. 그 결과 예술의 경계가 확장되었고, 동시에 예술과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등장하였다.



한스 아르프, <무제(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 콜라주)>, 1916~1917, 찢어서 붙인 종이, 색종이 위에 색종이, 48.5×34.6cm,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화가 한스 아르프(또는 장 아르프, Hans Arp, Jean Arp, 1887~1966)는 다다가 추구하는 ‘우연성’을 진지하게 실험했다. 철저한 계획과 연구, 수학적 원근법을 토대로 이상적인 세계를 창조했던 전통미술과 달리, 아르프는 창작 과정에서 우연을 개입시켜 인위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의 임의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신문, 벽지 등 일상의 사물을 잘라 붙였던 피카소와 브라크의 파피에 콜레 작업은 아르프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아르프는 스케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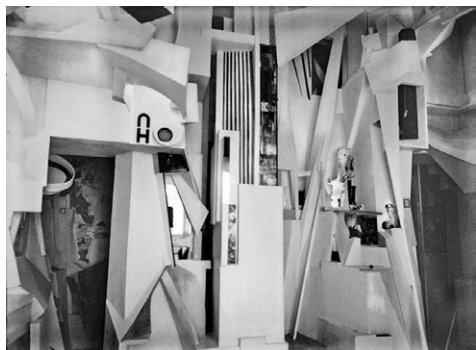
찢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이 그럴듯한 형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작업에 우연성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자 이제 예술은 인간의 통제 아래 제작되는 사물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자연의 속성과 인간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 되었다.<무제(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 콜라주), 1916~1917>)

1918년 전쟁이 막바지로 이르던 시기, 아르프는 본국 독일로 돌아갔고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를 만나 다다의 이념을 전파했다. 슈비터스

는 다다의 철학에 감명받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과자 봉지, 다 쓴 전차표, 철사, 행주 등 쓰다 버린 물건들에서 예술적 잠재성을 발견하고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모아 붙여 ‘메르츠(Merz)’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메르츠’는 잡지에서 찢어낸 상업은행(Commerzbank) 광고에서 따왔는데, ‘다다’처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쿠르트 슈비터스, <노동자 이미지>(메르츠 시리즈 중), 1919, 종이, 나무, 금속 등 혼합재료, 125×91cm,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쿠르트 슈비터스, <메르츠바우 1호>, 1933, 하노버(2차 대전 중 소실) © Photo: Wilhelm Redemann, 1933 © DACS 2007

버려진 물건들은 예술가의 손에서 조립, 채색되자, 사물의 질감, 형태, 색채가 새롭게 살아나 그럴듯한 추상회화로 변모했다.

물론, 슈비터스의 메르츠 시리즈는 여러 사물을 조립하여 조각을 만드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아상블라주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쓰레기로 작품을 제작한 점, 그리고 1차 대전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특징과 암울한 감성, 그럼에도 피어나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슈비터스는 나뭇조각, 금속, 온갖 잡동사니로 집을 만들고 ‘메르츠바우(Merzbau)’라 명명했는데, 그곳은 마치 종유석과 석순이 솟아있는 동굴 같았다. 메르츠바우는 비계획적, 우연적 요소로 모인 콜라주이면서 3차원 공간작업이라는 점에서 현대 설치미술의 효시를 보여준다.

한편, 베를린의 다다이스트들은 사회비판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들을 신문,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과 글을 조합하여 포토콜라주의 일종인 포토몽타주를 발전시켰다.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은 콜라주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인쇄매체 속 사진을 기존의 맥락에서 뜯어내어 재배치시키는 행위를 통해 사회를 비판했다.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1891~1968)의 <만세, 버터가 바닥났네!>(1935)에서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온갖 고철과 금속으로 만든 물건을 먹고 있다. 뒤로는 나치 문양의 벽지에 히틀러의 사진에 걸려 있다. 화면 하단에는 ‘만세, 버터가 바닥났네!’, ‘철은 항상 제국을 강하게 만들지만, 버터와 돼지기름은 기껏해야 사람을 살찌게 한다’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1차 대전 후 집권한 나치는 식량부족을 수반하더라도 국가 재무장을 위해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선전하였는데, 하트필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환호하는 가족을 통해 무비판적인 국민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를 풍자했다.

다다는 1930년대를 지나 2차 대전을 겪으며 소멸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탐욕스럽게 변했고, 그들의 반항은 공허하게 울렸다. 다다는 반예술(anti-art)을 주장했지만 모순되게 예술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이었다. 그러나 일상과 예술, 계획(논리)과 우연(임의)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통해 사회를 비판했던 그들의 정신과 행동은 현대미술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은 다양한 변형을 통해 지금까지도 끈덕지게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한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유희할 줄 아는 자는 모두 다다의 자손이다.

INVITATION TO THE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	----------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

1

2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
1만 5천원/부산시립
(607-3111,3113)

6

7

8

9

임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학생 1만원)/인터뮤직(02-2235-8956)

13

14

15

16

권준 피아노 독주회 '음악가의 초상' 19:30
전석 2만원(학생 1만원)/권준(010-4658-7963)

(재)부산문화회관 가
예술축제 마임서커스
11:00, 18:00
3만원2만원/(재)부산

20

21

22

2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퇴근길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19:30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28

29

30

제 41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KBS부산(051-620-7324)

ED THU FRI SAT

	3 교육공연 '큰별쌤 최태성과 음악 이야기' 10:30, 14:00 예술단 공연사업팀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 10:3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1, 3113) 제66회 부산가곡연주회 정기연주회 <예술가곡으로의 초대> 19:30 책 전석 2만원/부산독일가곡연주회(010-8455-2383)	4	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11:00, 14:00 대 5만5천원·3만3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11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별이 빛나는 <쌍쌍> 19:3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별이 빛나는 <쌍쌍>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교육공연 해외아동청소년 '글로벌(Glob)' 문화회관(607-6000)	17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14:00,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외아동청소년 예술축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루멘스(Lumens)' 11:00, 14: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부산시립합창단 2025 SUMMER FANTASY 'Chorus of Dream'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북유럽' 19:3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박현진의 네 번째 독창회 19:30 책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	2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Sound of Busan #4: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3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마티네 '북유럽' 11: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신유정 플루트 독주회 19:30 책 초대/문화공간(010-8531-9930)	26 제 41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대 KBS부산(051-620-7324)
31	사랑채 극장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 6월 6일(금)-7월 6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공연), 주말·공휴일 오전 10:30,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전석 1만2천원(전연령 관람가,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신데렐라 THE FAIRY TALE 		

SUN

MON

TUE

WE

6

7

8

9

13

14

15

16

모스크바라클라시크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14:00, 18:30
대 14만원·12만원·10만원·8만원/썬월드쇼마켓
(1566-5490)

부산예술고등학교 <예술>
무용정기공연 19:00
대 부산예술고등학교(010-

20

21

22

23

27

28

29

30

ED

THU

FRI

SAT

3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_토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0:30, 14: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1, 3113)

4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_토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0: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1, 3113)

5

국립현대무용단 <프로세스 인잇> 워크숍
(전문무용수) 13:30

연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국립현대무용단 <프로세스 인잇> 워크숍
(일반인(성인)) 17:30

연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11

모스크바라클라시크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14:00

대 14만원-12만원-10만원-8만원/㈜월드쇼마켓
(1566-5490)

12

모스크바라클라시크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14:00, 18:30

대 14만원-12만원-10만원-8만원/㈜월드쇼마켓
(1566-5490)

17

18

부산도시철도 개통 40주년 기념 시민 감사 음악회
19:00

대 부산교통공사(640-7004, 7009)

동천초등학교 오페라 애니메이션 콘서트 10:30

소 ㈜샤콘느(010-4018-1979)

19

지브리 영화음악 FESTA 17:00

대 필뮤직 컴퍼니(010-8675-4559)

24

25

26

31

전
시
실

한필작가전

· 7월 1일(수)-7월 5일(토) 전시실 1
전국한필서예작가회 010-2835-2494

숨쉬는 동천 전시회

· 7월 8일(화)-7월 13일(일) 전시실 1
숨쉬는 동천 010-2558-5667

<의식의 흐름> 경성도예가 진주공예협회

· 7월 15일(화)-7월 22일(화) 전시실 1
경성도예가회 010-9816-1590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 청년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아나는 불멸의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7월 17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회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오디션을 통해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공연 제작 전 과정을 함께하며 창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금까지는 무용과 국악이 융합된 <슈퍼 타이거>,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부산 청년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한 창작연극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특히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직접 각색과 연출을

맡아 시대를 초월한 고전 속 사랑 이야기를 오늘의 청년 감성으로 새롭게 되살린다.

• **연출, 재구성/** 김지용

• **출연/** 강규민, 권해원, 김선영, 김시아, 김유민, 김정민, 김현준, 박규한, 박명정, 서보기, 이사라, 이설, 이수현, 장재석, 전희태, 김비채, 김승완, 김유빈, 박선준, 박유진, 서운호, 안예은, 윤영식, 이영준, 임수연, 전용균, 하다현

일시 7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2:00,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액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 7세 이상 관람가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반 권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 청년예술인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공공극장과 청년예술인의 공존 실험,
그 4년의 기록

글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차장

위기의 문화생태계, 공공기관이 나섰다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리며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네 번째 해를 맞았다. 이 사업은 예술대학의 통폐합, 청년의 타지 유출 등으로 위축된 부산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문화회관이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다.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있지만 예술가가 남지 않는 도시의 위기 앞에서, 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 청년예술인의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움직였다.

특히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이라는 타깃을 중심으로, 단순한 교육 지원이나 작품 공모가 아닌 실질적인 공연 제작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관은 기획력과 인프라를, 청년예술인들은 에너지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인 협업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기존 문화정책의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

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례로, 청년예술인 육성에 대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간의 연계와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는 지역 기관과 기업의 연대는,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공연을 통해 말하다, 청년이 주인공이 된 무대

2022년 무용극 <슈퍼 타이거>, 2023~2024년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에 이어 올해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을 조명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0여 명의 청년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이들은 단순히 출연자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제작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무대 언어와 감각을 키워가고 있다. 또래 예술가들과 함께 구성된 창작진과의 협업은 이들에게 진정한 공동창작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공연은 그 자체로도 청년 배우들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았고, 조명, 음향, 무대 등 극장의 전문 스태프들이 함께하며 공공극장의 역량이 총동원된다. 청년들이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며, 무대에 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슈퍼 타이거>에서는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안무를, 부산대학교 이정호 교수가 음악을 맡았고, <야구왕, 마린스!>에서는 국내 유수의 뮤지컬 제작진이 함께하며 이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 사업은 무대에서의 단발성 기회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직업성'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리허설과 워크숍, 무대 기술 습득, 인터뷰와 프로모션 참여 등 종합적인 실전 훈련은 청년들에게 일종의 '현장형 예술 교육과정'이자 '현업 데뷔 무대'로 기능한다. 회관이 예술가를 선발하고 길러내는 이 생태계는,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 예술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는다.

프리젠테이션에서 프로덕션으로, 회관의 역할 변화

이 사업은 (재)부산문화회관이 단순히 외부 콘텐츠를 유치하고 무대에 올리는 프리젠테이션 중심의 극장에서 벗어나,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창작을 총괄하는 프로덕션 중심 극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공연 제작의 중심에 공공극장이 있고, 지역 청년들이 그 무대를 채운다는 구조는 부산의 예술생태계에 지속가능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극장 자체의 역량 강화로도 이어진다. 예술감독, 연출, 무대감독, 음향·조명·영상기술 인력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연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회관 내부 스태프 역시 기획과 제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창작자와의 협업은 극장의 사고 방식과 프로세스에도 신선한 자극을 줬고, 이는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부수 효과도 함께 낳았다. 기획·제작극장으로서의 (재)부산문화회관은 이제 지역 예술 생태계 설계자이자 실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구조를 위한 다음 단계

이제 회관은 단기성과에 머물지 않고, 공연 이후에도 창작물이 순환될 수 있는 유통 경로와 재공연 구조, 기록과 아카이브까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왕, 마린스>는 대만에서의 라이선스 공연을 성사시키며 콘텐츠 수출 가능성을 입증했고,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타극장 및 청소년 공연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공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회관의 프로그램도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부산문화회관은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문화자산의 보존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과 교육 과정, 기록 영상 등은 아카이빙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며, 이를 디지털 플랫폼이나 시민 커뮤니티와 연계해 재활용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이력이 되고,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 자원이 되는 자산화 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청년과 도시를 잇는 문화의 사다리

지역에서 예술을 꿈꾸는 청년들이 하나둘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자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제 (재)부산문화회관의 가장 선도적인 브랜드이자, 부산이 청년을 품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청년에게 기회를, 도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이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업이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가 던지는 중요한 함의다. 회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으며, 청년은 이 기회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일회성이 아닌 '축적'과 '확장'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이 무대를 거친 청년들이 언젠가 이 도시의 예술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연출·재구성
김지용(부산시립극단예술감독)



2025. 7. 17. THU - 19. SAT 목.금 19:30, 토 14:00,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작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후원  한국마사회

문의 및 예매 www.bscc.or.kr 051-607-6000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2회 정기연주회

여름, 목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7월 10일(수), 제622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콘서트홀 무대에 또다시 오른다. 이번 연주는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가 협연자로 나서며,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이라는 두 거장의 대표작이 연주된다. 녹음이 우거지고 생명이 자라는 한 여름의 계절감과도 어울리는 두 작품은, 베토벤과 브람스가 각자의 청년 시절에 남긴 걸작으로, 감성과 기교를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이 무대에 오른다. 베토벤이 작곡가이자 연주자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완성된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던 형식과 섬세한 악상 전개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관현악이 아닌 피아노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는 독특한 도입부는 이후 수많은 피아노 협주곡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고, 전 악장을 관통하는 내면적 깊이와 시적인 정서는 베토벤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번 무대에서 피아노를 맡는 폴 루이스는 베토벤 해석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진중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음악적 접근으로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작품을 다수 녹음하였으며, 영국 클래식 음악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연주자다. 특히 그의 연주는 감정의 과잉을 배제하면서도 음악의 본질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CBE(대영제국 훈장)를 수훈한 바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뉴욕 필하모닉, NHK 심포니, 로열 콘서트헤바우 등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며 명실상부한 거장의 반열에 올라 있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이 연주된다. 브람스가 오스트리아 뉘른베르크에서 여름을 보내며 작곡한 이 작품은 자연의 따스한 정취와 함께 내면의 고요한 사색이 함께 흐른다. 제1번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을 고심했던 브람스는, 제2번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밝은 색채의 음악을 완성하며 작곡가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목가적이고도 서정적인 이 곡은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풍성한 선율과 견고한 구조, 그리고 교향곡 전반에 깃든 자연의 숨결은 여름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번 연주는 베토벤과 브람스라는 고전과 낭만을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해석과 뛰어난 기량의 협연이 빛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관객은 물론,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달할 이번 무대는 부산콘서트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음악적 경험이 될 것이다.



지휘 홍석원



피아노 폴 루이스



7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607-6000

예매처 부산콘서트홀 홈페이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별이 빛나는 쌍쌍

부산시립무용단이 선보이는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별이 빛나는 <쌍쌍>이 오는 7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12일(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한국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온 '댄스살롱' 시리즈는 올해 '둘이서 함께'라는 주제로 관객을 찾아간다.

이번 작품은 '협무(2인무)'라는 형태를 중심에 둔다. 각기 다른 다섯 쌍의 무용수가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색채와 감성으로 짝을 이룬다. 이는 단순한 파트너링을 넘어선 '쌍쌍'의 예술적 실험이자,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감정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무대이다.

공연은 '용호상박'으로 시작된다. 정가 소리꾼 정승준이 현장에서 직접 선사하는 소리에 맞춰, 11일은 강모세, 최의욱이, 12일은 허태성, 장영진이 각기 다른 호흡으로 춤을 풀어낸다. '용'과 '호랑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두 존재의 기세와 긴장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춤과 소리의 조우를 통해 다층적인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당춤'은 한국 전통 무속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강진무 계열의 역동적인 춤사위를 중심으로, 하현정과 류가빈이 대감놀이의 일부를 발췌해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 춤은 민간신앙과 여성의 서사, 그리고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을 무대 위로 불러내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꿀'은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착안한 철학적 무용극이다. "이건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야." 어린 왕자의 말처럼, 이 작품은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을 요청한다.

양일 중 각각 하루씩만 만날 수 있는 독립 작품도 있다. 11일에는 '춘무'가, 12일에는 '사랑가'가 무대에 오른다. '춘무'는 두 무용수가 봄의 기운을 담은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춤을 선보이며, '사랑가' 또한 두 무용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서정의 정수를 담은 무대다. 진심 어린 사랑의 정서를 담은 춤사위가 고즈넉한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쌍학무'는 은빛과 푸른빛의 학이 덧배기춤을 추듯 유려하게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세월과 수련이 빚어낸 춤꾼의 내공을 담백하게 풀어내며, <쌍쌍>이라는 주제의 미학적 정점을 찍는다.

예술감독 이정윤의 감각적인 연출 아래 구성된 이번 공연은, 단순히 두 명이 추는 춤 이상의 의미를 던진다.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의 거울이 되며, 이를 춤이라는 언어로 풀어낸 점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한 편 한 편이 독립적인 이야기이자, 동시에 하나의 유기적인 주제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쌍쌍>. 여름밤, 춤이라는 별빛 아래 펼쳐질 다섯 쌍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우리가 잊고 있던 '함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아이와 어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무대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글로브(Glob)&루멘스(Lumens)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마임서커스 '글로브(Glob)'부터
눈과 귀로 즐기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루멘스(Lumens)'까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로, 캐나다 퀘벡에서 온
상상력의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임서커스 '글로브(Glob)'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루멘스(Lumens)'

7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36개월 이상 관람(추천연령 6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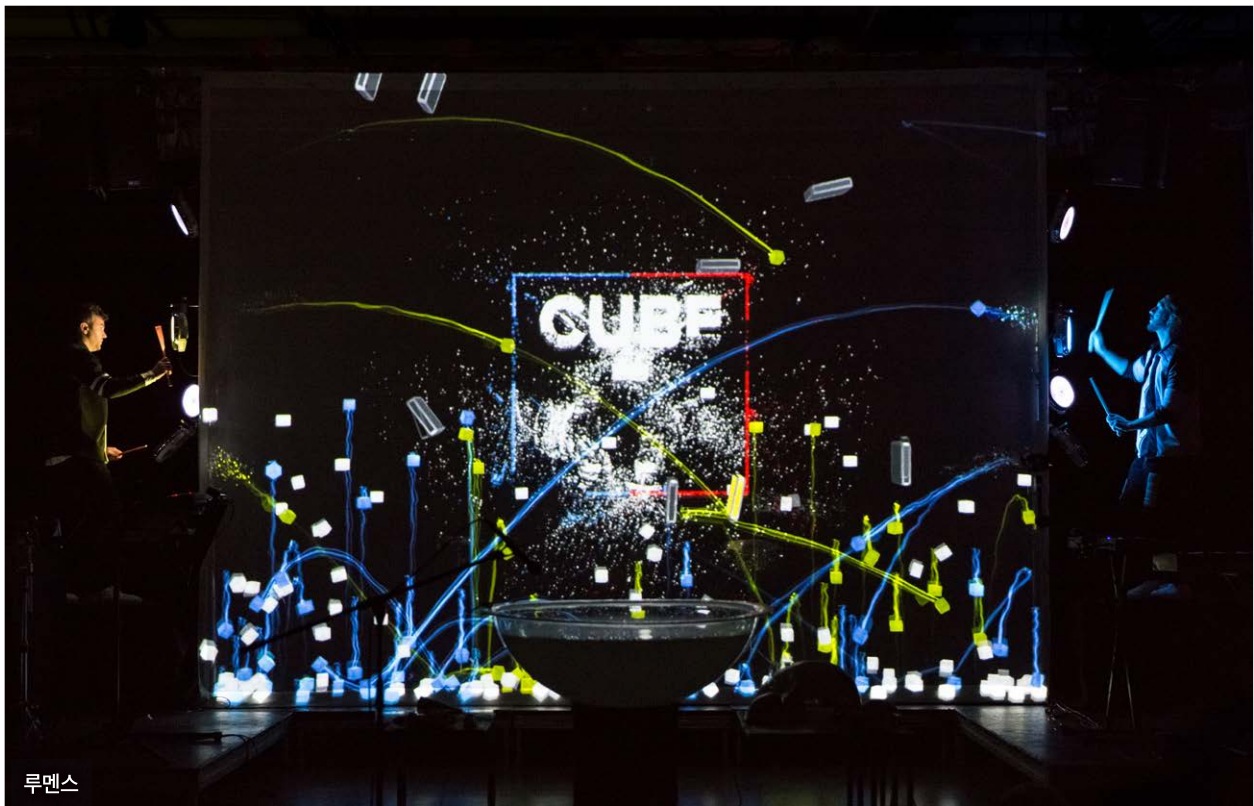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퀘벡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신선한 무대 경험

특히 이번 두 작품은 캐나다 퀘벡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창작한 공연으로, 북미 공연 예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작들이다. 여기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융합하고, 어린이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캐나다 특유의 공연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부산에서 처음 소개되는 캐나다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언어의 장벽 없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시청각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무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글로브



몸짓으로 전하는 유쾌한 감동 글로브(Glob)



캐나다 퀘벡의 예술단체 ‘레 푸투쿠르(Les Foutoukours)’가 제작한 ‘글로브’는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사랑받아 온 가족 공연으로, 말없이 온몸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임 서커스 공연이다. 두 명의 광대가 펼치는 소박한 무대 위, 낮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작은 생존기와 엉뚱한 놀이가 따뜻한 웃음과 공감을 전하며, 관계의 시작, 실수와 도전, 협력과 화해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과 상상력을, 어른들은 잊고 있던 순수함과 여유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첫 공연으로도 안성맞춤인 ‘글로브’는 감성적이고 유쾌한 무언극의 진수를 보여준다.

인공지능 AI와 인간의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루멘스(Lumens)



‘루멘스’는 전자음악과 시각예술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로,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음악과 이미지를 함께 창조해내는 공연이다. 관객은 무대 앞과 주변을 둘러싼 3D 멀티스크린 환경 속에서, 두 명의 퀘벡 연주자가 ‘루멘스 게임’을 통해 AI의 지시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함께 따라가며 관람하게 된다. 드럼 패드, 전자 악기, 레이저 프레임, 키네틱 모션 캡처 등 직접 개발한 다양한 악기들로 무대가 채워지고 연주자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멀티스크린이 반응하면서 관객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눈으로 ‘보는’ 몰입형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공연 종료 후에는 직접 공연 악기를 체험해 보는 관객 참여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공연의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이어갈 수 있다. ‘루멘스’는 북미와 아시아 전역에서 10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2018년 제26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객을 만났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무장한 최신 버전의 ‘루멘스’를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여름밤,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오는 7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은 바쁜 일상과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하루의 끝자락에서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 접근성 높은 구성, 그리고 국악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전한다.

이번 연주회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국악이 어렵고 낯선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국악이 지닌 독특한 정서와 리듬, 그리고 국악기 특유의 음색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선사한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이번 무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싹이 되어줄 것이다.

첫 무대는 자연의 생명력과 평온함을 담은 국악관현악 '청청'으로 포문을 연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자연, 맑은 물소리를 음악으로 그려낸 이 곡은 관악기군 중심의 선율 전개로 생동감을 더한다. 이어지는 '파미르고원의 수상곡'은 중앙아시아 타지크족의 민속 음악을 소재로 한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금 부수석 조은경의 협연이 곡의 입체감을 배가시킨다. 다양한 박자의 리듬 전환과 이국적인 선율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안겨줄 예정이다.

또한 국악기와 재즈가 만나는 독특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노들강변 - St. Thomas'는 전통 민요에 재즈 스윙 리듬을 입힌 이색적인 편곡으로, 해금과 장단의 조화가 돋보이는 흥겨운 무대다.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성악 수석 박성희가 협연하는 '시연가'는 고려가요 '가시리'와 판소리 '춘향가'의 정서를 녹여낸 국악가요로,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섬세한 선율로 풀어낸다.

대한민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과 함께하는 'Bésame mucho - La cumparsita'는 라틴 명곡의 정열적인 감성과 국악기의 절묘한 조화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마지막으로 남미 민속공연팀 '인디언 쿠스코'와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El Cóndor Pasa', 'Linda bella mujercita', 'El Dorado'의 선율이 흐른다. 해금과 대금, 가야금



지휘 이동훈

하모니카 전제덕



남미 민속공연팀 인디언 쿠스코

과 피리, 장구와 북이 이끄는 국악기 연주 위에 남미 특유의 리듬이 더해져, 전통과 세계음악이 국경을 넘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이국적인 정서와 국악의 섬세한 여운이 공존하는 이번 공연은,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된 국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 국악으로 물드는 따뜻한 퇴근길이 기대된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북유럽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 부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고품격 무대, '부산시향과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세 번째 무대가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기존 한 낮의 공연으로 호평 받았던 마티네 공연 외에도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이틀간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매 시리즈마다 세계 여러나라의 음악을 테마로 구성,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나라별 클래식 음악을 향유해볼 수 있다.

7월에는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부지휘자 백승현과 함께 북유럽 음악의 3대 거장인 그리그와 닐센, 시벨리우스의 고향 북유럽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자국의 음악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북유럽 특유의 광활한 자연과 각국의 민족적 정서를 음악에 담아냈다.

첫 곡으로는 노르웨이 대표 작곡가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노르웨이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홀베르크 남작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한 곡으로, 모두 5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덴마크 출신의 작곡가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으로, 한국 관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닐센이 말년에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은 일반적인 협주곡과 달리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담하고 개성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플루트 독주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협연자 조성현은 20대 나이로 입단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독일 쾰른 필하모닉(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으로 임명 받으며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 석권 후 베를린필하모닉 카라얀 아카데미를 통해 오케스트라 커리어를 시작, 2019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최연소 조교수로 발탁되어 한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플루트의 진면목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데카 레이블로 발매된 그의 '슈만, 라이네케, 슈베르트'와 '바흐'는 높은 완성도로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조국 핀란드의 독립을 염원하며 작곡한 '핀라디아'로, 그를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그는 국민악파의 대가답게 20세기에 살았음에도 후기 낭만주의에 기반한 국민악파 특유의 음악만을 작곡했으며, 특히 애조를 담은 북유럽의 음악다운 특색을 가지고 있다.



지휘 백승현



플루트 조성현



7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25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0

부산시립합창단 2025 Summer Fantasy Chorus of Dream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한여름 밤, 낭만과 환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 여름 브랜드 공연이 돌아온다. 7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선보이는 스무 번째 여름 시즌 콘서트다. 이번 무대는 합창, 오케스트라, 기타 협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져 한층 더 풍성하고 감각적인 여름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썸머 판타지>는 가요 합창이라는 색다른 시도로 시작해 해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의 가요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화음악과 뮤지컬 넘버 등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을 중심으로, 클래식 합창의 풍성한 사운드에 대중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이 더해져 음악적 감동은 물론 무더위를 잊게 할 청량한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기선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타리스트 김경태가 협연자로 함께해 더욱 주목된다. 특히 청소년교향악단과의 협업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세대를 넘는 음악적 소통의 장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은 아론 코플랜드의 장엄한 오프닝 <Fanfare for the Common Man>으로 시작해, 김정연 편곡의 <페르균티트 모음곡>, 명작 영화와 뮤지컬의 감동을 담은 OST와 뮤지컬 넘버들이 이어진다. 김예은의 편곡으로 선보이는 <언체인드 멜로디>, <어벤저스>, <보헤미안 랩소디>는 현대적 감각을 더한 편곡으로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호아킨 로드리고의 명곡 <아랑훼즈 협주곡>은 기타리스트 김경태의 섬세한 연주와 함께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 뮤지컬 넘버들을 엮은 <A Concert Celebration>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평범한 일상에 음악의 마법을 불어넣는 이 밤, 가족과 함께하거나 친구, 연인과 함께 해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기타 김경태



7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ound of Busan #4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부산 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 'Sound of Busan #4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마지막 무대가 7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획공연 시리즈 'Sound of Busan'으로, 부산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로 관객과 만났다. 완고한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는 오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4개의 교향곡들은 그의 음악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 무대에서는 인간의 내면과 그 깊이를 탐구한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연주를 만날 수 있었다.

시리즈 마지막인 이번 무대에서는 1996년 창단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으로, 민간 오케스트라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관객과 만난다.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자인 베버의 낭만 오페라 '오이리안테' 서곡을 시작으로 후기 낭만파인 브루흐의 '이중 협주곡',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을 통해 낭만주의 시대의 자유롭고 개성을 강조하는 음악예술을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특히 클라리넷과 비올라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브루흐의 '이중 협주곡'은 비올리스트 김남중과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비올리스트 김남중은 정명훈이 이끌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솔리스트로서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홀, 러시아 글린카 콘서트홀, 프랑스 오를레앙 콘서트홀, 스페인 테네리페 아구아 마리나 극장 등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 초청받아 무대에 섰다. 2016년에는 비올리스트 최초로 뉴욕 UN 본부 총회의장 독주 무대를 펼치고 UN 국제 평화 기여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은 일찍이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금호 영 아티스트에 선정되는 등 차세대 연주자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피날레를 장식할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은 그의 교향곡 4곡 가운데 오늘날 가장 덜 연주되는 교향곡이지만 당대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비평가들은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이 앞서 작곡된 제1번과 제2번에 비해 훨씬 개성적이라 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휘 윤상운



비올라 김남중



클라리넷 백동훈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회를 맞이한 BIKY, 과거를 넘어 미래로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20th Busan International Kids & Youth Film Festival: BIKY



일 시 7월 8일(화)-19일(일)

장 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유라리광장, BNK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등

문 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biky.or.kr



스무 살을 맞이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전방위적 확장을 시도한다. 7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영화의전당과 CGV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작년보다 확대된 173편의 상영작과 7일간의 일정,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단편 영화의 상영 회차를 2회로 늘리고 관객과의 대화도 2회 운영하는 등 관람 기회를 확대하며, 젊은 창작자와 관객 간의 접점을 넓힌 것이 주목된다. 7월 15일(화)부터 19일(토)까지는 부산 서부권에서 열리는 '웨스트 BIKY'가 이어지며, 영화제를 특정 공간이 아닌 '이동형 축제'로 정착시키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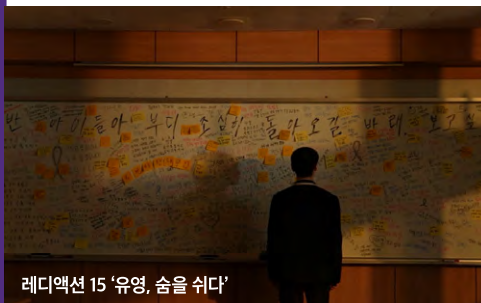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BIKY 놀이터의 전면 개편이다.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의 협력 아래 '바로 이맛이야'(푸드존), '꾸미 넘치는 공연', '썰기한 체험' 등 세 영

역으로 재구성된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먹고, 보고, 체험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진화했다.

심사제도 개편도 눈에 띈다. 남성여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쿨 심사단'이 올해 처음 운영된다. 이를 통해 BIKY는 어린이·청소년이 감독이자 심사위원이 되는, 진정한 참여형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홈페이지 개편과 티켓 시스템 도입도 실질적인 관객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영화제 고유 콘텐츠에 맞는 자체 예매 시스템과 개인화된 관람 페이지가 구축되어, 온라인 경험까지도 영화제의 일부로 확장했다.

공간적으로도 CGV 센텀시티, 사하구청 제2청사, 롯데시네마 부산명지 등 신규 상영관 확보를 통해 단편과 인기작의 반복 상영을 가능케 하며 관객 접점을 다각화했다. 국비지원이 중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산은행 등 신규 스폰



레디액션 15 '유영, 숨을 쉬다'



레디액션 18 '왜 우린 유령이 될 수 없는 걸까'



BIKY 키즈 '박쥐 벤지의 모험'



개막작 '우주소녀와 로봇'



달빛 극장 - 뽀로로 극장전 '뽀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서 유치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캐나다 퀘벡 작품인 '우주소녀와 로봇'이 선정되었다. 비행사 어머니를 잃은 소녀 셀레스트가 로봇과 함께 살아가며 훈련을 받고, 첫 우주 임무를 떠난 뒤에도 로봇은 그림을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며 그녀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성영화 스타일의 연출과 따뜻한 그림체로 감정과 서사를 그려낸 이 작품은 대사 없이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올해 BIKY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수작이다. 이 영화는 개막과 동시에 가족과 이별, 기다림과 재회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하며 영화제의 서사를 여는 문이 된다.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몬트리올 국제어린이영화제와의 협력으로 '퀘벡 특별전'이 열리며, 총 12편의 퀘벡 작품이 16회차에 걸쳐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장편 5편으로 구성된 '한국 가족시네마의 현재', AI 영화 워크숍 결과물을 상영하는 '퓨처랩 청소년 AI 시네마 특별전', 그리고 9편의 극장용 뽀로로 장편 영화를 야외에서 상영하는 '뽀로로 극장전' 등이 이어진다. 이는 가족, 미래, 국

제 교류를 모두 포괄하는 기획으로서 올해 영화제의 성격을 대표한다.

또한, 'BIKY 클래스'를 통해 스페인 거장 빅토르 에리세의 '별집의 정령'과 '남쪽'을 상영하며, 그의 영화 정신과 아이를 통해 비춰본 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작년의 테마였던 소마이 신지 감독의 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여름 정원'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클래스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세계영화의 역사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호흡한 거장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발굴할 예정이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단편영화제 클레르몽페랑과의 협의 아래 키즈 섹션의 다양한 단편들과, 슈링겔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의 교류도 굳건하게 이어나가며 독일 장편 3편, 단편 2편도 상영된다. 해외 주요 영화제와의 협업 역시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며, 향후 교류의 가능성을 넓힌다.

스무 해를 맞은 BIKY는 단순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벗어나, 세대와 공간, 장르와 역할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영화가 어린이에게 주는 상상력, 청소년에게 주는 성장의 기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영화를 통해 바라보게 될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한 실험의 장이자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BIKY 유스 '미스 부츠'



BIKY 유스 플러스 '패니(Fanny)'



BIKY 비온트 '사랑, 우유, 그리고 치즈'

새로운 공간, 신선한 울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0회 정기연주회
‘신세계’

글 박진홍 음악평론가

5월 23일 금요일 저녁, 6월 개관하는 부산콘서트홀에서는 시범 공연의 일환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신세계”가 무대에 올랐다. 개관 메인 콘서트가 아니라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무대는 새롭게 랜드마크로 떠오른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의 대표 교향악단 부산시향이 함께 한 것이라 더욱 뜻깊었다.

시민공원은 차를 마시고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봄날 저녁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가 석양과 함께 물들어갔다. 공원을 가로질러 걸으며 본 부산콘서트홀의 외관은 일렁이는 물결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연상시켰다. 서퍼가 된 듯한 기분으로 파도 아래의 출입구로 들어가자 로비는 관객들의 기대에 들뜬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에서 통유리로 보이는 유려한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 왕좌에 앉은 듯 객석과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육중한 파이프오르간의 모습에 관객들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갖 감탄사를 쏟아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은 농장의 저택을 포도밭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객석이 무대를 계단 형식으로 둘러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으로 높은 음향 효율과 관객 몰입도를 선사한다. 부산 콘서트홀의 음향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무대 위의 아주 작은 숨결까지도 섬세하고 분명하게 담아냈는데, 국내 최정상급이라 할만했다. 이날 공연은 다른 무대와는 달리 밝은 무대 위 조명뿐만 아니라 객석에도 불을 밝힌 채 진행되어 단원들의 입장부터 공연의 모든 광경,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까지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었다.

지휘자 홍석원은 음악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탁월한 몸짓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갔다. 첫 곡, 모차르트 교



향곡 제41번 ‘주피터’ 연주는 마치 오늘의 연주를 올림포스 왕좌에 오르는 신들의 왕에 빗대어 묘사하는 것 같았다. 고전 음악이 그러하듯 작곡가가 제시한 명확한 박자와 템포를 지키되, 공연장이 만들어내는 잔향의 여운을 정확히 고려하여 프레이즈를 이어감으로써 소리가 형식을 더 완벽한 구조물로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1악장 재현부에서 미묘한 루바토는 형식을 깨는 초월적인 자유를 느끼게 했다. 느린 2악장에서는 거대한 범선의 뜻을 이어 놓은 듯한 천장의 반사판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케스트라 뒤쪽에 배치된 관악기와 타악기의 사운드를 다층적으로 구분 지으며 생동감과 입체감을 주었다. 곡 후반부로 갈수록 음악은 주피터가 호령하는 올림포스를 현실로 그려냈다. 신의 광채는 소리로 바뀌어 객석을 휘감으며 관객의 호흡을 흠뻑했다. 연주 도중 언뜻언뜻 보이는 지휘자의 표정은 연주하는 내내 여유로웠고, 비팅은 명쾌했으며, 음악을 타는 몸짓은 섬세했다.

후반부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가 무대에 올랐다. 전반부 ‘주피터’보다 대폭 보강된 편성으로 무대를 꽉 채우고 공연장 전체를 압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1악장에서는 켜켜이 쌓이는 악기들의 소리, 명료한 다이내믹, 그리고 공연장이 만드는 울림이 웅대한 대자연의 풍경을 가슴에 담은 인간의 벽찬 마음을 입체적으로 펼쳐냈다. 2악장, 잉글리쉬 호른의 솔로는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이 쏟아내는 온기가 밤새 내려앉은 안개를 서서히 걷어가듯 부드럽고 온온하게 객석에 내려앉았다.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에서는 음 하나하나를 감싸는 배음의 결이 마치 허공으로 떠오른 잔물결처럼 시각적으로 떠올랐다. 아주 작은 소리도 작품에서의 가치를 객석 구석구석 소실 없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섬세한 감각이 가능한 건 무엇보다 빈야드 방식의 공연장이 선사한 공간의 마법 덕분이었다. 2악장에서는 마치 훌륭한 무용수가 플로어 전체를 넓게 쓰며 춤사위를 펼치는 것처럼 음과 음 사이, 음표와 쉼표, 악구와 악구 사이를 충분히 여유롭게 쓰면서 긴장과 이완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매 순간 각 악기군이 갖는 의도가 섬세하게 전해지면서도 유



연하고 화려한 하모니가 피어났다. 연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명이 비추고 있음에도 객석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대만이 빛나면서 연주가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과 웅장한 사운드가 관객들의 의식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 하는 마지막 피날레가 에너지가 응축된 공간으로 쏟아지고, 터져 나온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그날 밤 음악이 만들어낸 소리의 밀도를 극대화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재료로 작품이 가진 형식을 구현해 낸다. 이번 연주에서 부산시향은 정상으로 치닫는 연주 기량으로 구조물의 부분 부분을 단단하게 쌓아 올렸고, 지휘자 홍석원은 소리의 특성에 맞게 색채감을 입히고 화려한 내러티브를 선사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연장은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생명력을 더해 주었다. 마치 공연장과 음악, 연주자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했다.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작품의 구성이나 음악의 표현이 예상을 벗어나 뜻밖의 어떤 것을 만나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이 떠오르는 무대였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단지 새로운 공연장의 울림을 시험해 본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부산시향이 스스로 예술적 정체성과 역량을 되돌아보며 다져낸 무대였고, 독일 무대를 앞두고 던지는 자궁심 있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 신선한 울림, 그리고 ‘신세계’라는 주제 아래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한 감동이 부산의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 낸 시간이었다.

부산의 소리, 브람스로 울리다 Ⅲ

Sound of Busan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글 김정화 음악평론가

만개한 장미 향기로 가득한 오월의 끝자락, ‘브람스 사이클’ 시리즈 세 번째 공연이 지난 5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무대는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네오파)가 맡았으며, 상임지휘자 홍성택과 재미 피아니스트 노윤화가 함께 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Op. 80>과 <교향곡 제4번 마단조, Op. 98>, 그리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 마장조, Op. 73, “황제”>로 구성되었다.

다른 언어, 좁혀지지 않는 거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일명 “황제”는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가 긴장과 해방, 주도권과 양보의 경계 위에서 함께 서사를 엮어가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날 무대는 그 이상적 균형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악보에서 각자의 언어로 끝내 만나지 않았다. 피아니스트 노윤화는 평균보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손놀림과 강한 터치로 무대를 장악했다. 객석에서도 또렷이 들리는 강한 음량은 피아노의 선율을 무게감 있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 강도는 때로 음악의 숨결을 짓눌렀다. 과도한 페달링은 선율의 유기적 흐름을 방해했고, 잔향이 겹겹이 쌓여 소리의 명료성이 흐려졌다. 이 작품의 복잡한 감정선을 평면화시켜 음악적

입체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호흡도 끝내 수렴되지 않았다. 제1악장을 여는 서주부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는 엇갈렸고, 이후에도 그 틈은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다. 서로의 호흡을 조율하기보다는, 각자의 해석과 타이밍 속에서 병렬적인 연주를 이어갔다. 긴장을 지탱하는 구조적 응집력은 느슨해졌고, 서사적 전개는 단절감을 남겼다. 제2악장에서 피아노의 프레이징은 긴 호흡 대신 수직적으로 움직였고, 명상적인 분위기와 제3악장의 승리감 사이를 잇는 ‘아타카’ 구간에서 불균형은 더욱 도드라졌다. 호른이 유지해야 할 지속음이 중간에 끊기고, 팀파니의 리듬은 미묘한 어긋남을 보였다. 피아노의 루바토 역시 오케스트라와의 감정적 교류 없이 홀로 흘러갔고, 음악은 점점 더 분리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곡이 지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감정 구조는 단순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채 표면을 맴도는 데 그쳤다.

이날 무대를 둘러싼 준비 과정도 이러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협연자는 공연 일주일 전 국내에 도착했지만, 오케스트라와의 리허설은 연주 전날과 당일 두 차례로 진행되었었다. 첫 리허설을 오케스트라 없이, 지휘자와 협연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음악적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조정이 아니라, 음악적 공동 작업으로 고려돼야 할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해석의 공유, 긴장의 완화, 상호 신뢰의 형성은 모두 이 시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황제”라는 별칭은 단지 규모의 웅장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주체가 치열하게 반응하고 맞서면서 도달하는 이상적 조화와 다성적 균형의 은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 무대 위의 “황제”는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한 채, 고립된 언어로 흩어지다가 퇴장했다.

아쉬운 균형, 해석의 거리

이날 공연의 문을 연 <대학 축전 서곡>은 시작부터 당당한 템포와 음량으로 연주자들의 자신감이 확연



히 드러났다. 특히, 학생가요 ‘Wir hatten gebauet ein stattliches Haus’를 바탕으로 한 트럼펫 주제가 처음으로 뚜렷하게 전면에 나서며, 곡의 중심을 과감히 차지했다. 이 대목은 브람스 특유의 유쾌한 풍자가 반영된 순간이었지만, 이날 연주에서는 관악기의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첼로와 베이스는 이에 반응하듯 느긋하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악기 간의 세밀한 유기적 대화는 다소 아쉬웠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던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은 그의 음악적 깊이와 절제미가 집약된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바흐의 영향으로 활용한 파사칼리아 형식은 고요한 열정과 치열한 질서가 교차하는 브람스의 음악적 결론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날 연주는 전체적으로 조화와 긴장감의 균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첫 번째 악장은 브람스가 고전적 소나타 형식 안에 풍부한 감정의 흐름을 구축하는 중요한 악장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관악기의 대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대화라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듯한 인상이 강했다. 때때로 비올라와 첼로가 과도하게 전면에 나서면서 음향적 균형이 곳곳에 깨졌고, 구조적 명확성이 흐려졌다. 특히 첼로 파트의 세밀한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믹 조절 부족은 구조적 명료함을 해쳤다. 제2악장은 느린 악장에서 필수적인 섬세한 표현과 정서적 집중이 부족했다. 특히 다이내믹 대비가 제한되어 감정의 기복과

긴장감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때때로 과도하게 돌출되었던 목관악기의 색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악장 전체의 따뜻하고 유연한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게다가 연속된 휴대폰 벨소리까지 몰입을 방해했다. 제3악장에서는 리듬과 박자의 명료함, 그리고 경쾌한 터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연주는 2/4 박자가 마치 4/4박자처럼 흐르면서 박자부터 명확하지 않았다, 팔분십표와 팔분음표가 교대로 나오는 첼로 파트의 피치

카토는 리듬 분절이 불분명해지면서 고유한 에너지가 둔탁하게 변질되었다. 형식적 질서를 마감하는 구조의 파수꾼인 팀파니와 트라이앵글 또한 일관된 리듬이 유지되지 않아 음향적 균형이 흔들렸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음색의 투명성이나 추진력이 부족했고, 단조롭고 무거운 음향이 우세했다. 파사칼리아 형식을 통해 엄격한 변주를 구축한 마지막 악장은 곡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날 연주는 단순한 음량 변화만 강조되었고, 각 변주가 가져야 할 점진적 긴장과 해소의 흐름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몰입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 청중에게 피로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극적인 서사’보다 브람스가 구상한 ‘구조적 응집력’과 ‘내면적 깊이’가 그리웠던 밤이었다.

무대 위의 또 다른 언어

이날 유독 인상 깊었던 장면은 네오편 악장의 첫인사였다.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악장이 입장과 동시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데 비해, 임병원 악장은 무대 중앙에서 약 3초간 흔들림 없는 정중한 자세로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다. 인터미션 이후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관객과 마주했다. 이러한 무대 매너는 공연 전체의 신뢰를 형성하는 ‘믿음의 의례’로 작용했다. 비록 음악적으로 아쉬운 순간들이 남았지만, 관객을 향한 예술가의 귀한 장면에서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품격과 신념이 묻어났고, 음악이 지닌 가능성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일 시 | 6월 6일(금)~7월 6일(일) 주말·공휴일
오전 10:30, 오후 2:00
※화-금요일 오전 10:30
예술교육공연(단체공연)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작 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뮤지컬 ‘미운오리새끼’에 이어 부산시립극단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왕자와의 결혼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데렐라를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호의와 조력을 통해 완성되었던 여성의 성공담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행하며 성취해내는 여성의 성장담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가족극에 걸맞은 흥겹고 코믹한 장면으로 구성, 온 가족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일 시 |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그림책을 펼치고 나온 따뜻한 상상력의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수박 수영장’은 베스트셀러 작가 안녕달이 2015년 출간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새로운 독자를 만나고 있는 동명의 스테디셀러가 원작으로, 뜨거운 여름날, 커다란 수박 안에 들어가 수영을 한다는 시원한 상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잘 익은 거대 수박이 반으로 ‘썩’하고 갈라지면, 붉은색 수박 속으로 가득 찬 수영장이 무대 한 가득 펼쳐진다. 여기에 수박 껍질로 만든 대형 미끄럼틀에 하늘을 나는 구름장수, 동글동글 수박 씨앗까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등장인물들과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게 될 것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

일 시 | 7월 2일(수) 오전 10:30, 오후 2:00,
3일(목) 오전 10: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정기회원 20% 할인)
※ 3일 일반관람 가능, 단체관람 별도문의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1, 3113



인기강사 큰별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

우리 음악에 큰 업적을 남긴 왕을 중심으로 음악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사

강사 최태성의 강의와 해설로 진행된다. 연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김경수의 지휘로, 이동훈 예술감독 작곡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신수제전, 종묘제례악 등 을 들려주며,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과 부산시립 무용단 단원 하현정이 특별출연한다.

임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7월 8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 의 | 인터뷰직 02-2235-8956



섬세한 감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의 독주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임정은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다진 연주자로, 솔로뿐 아니라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재직 중이며, 특유의 서정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민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드보르작의 낭만적인 정서부터 베토벤의 고전적 균형, 이차이의 강렬한 독창성, 그리고 그의 서정적 아름다움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바이올린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66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예술가곡으로의 초대

일 시 | 7월 3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독일가곡연구회 010-8455-2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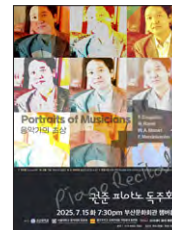
독일가곡연구회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독일의 아름다운 가곡들 중에서도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명곡들로 구성되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섬세한 선율과 시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독일 가곡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본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들 물론 처음 가곡을 접하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감성을 전할 것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가곡 콩쿠르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은 수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신선하고 따뜻한 해석으로 독일 가곡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잠재력은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안겨줄 것이며, 차세대 성악가들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권준 피아노 독주회 ‘음악가의 초상’

일 시 | 7월 15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 의 | 권준 010-4658-7963



<자화상>과 <다양성>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작곡가들의 내면을 담은 대표작들과 함께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아우르는 공간적, 바로크부터 인상주의까지 아우르는 시대적 스펙트럼을 담아낸다. 쿠프랭과 라벨,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의 음악을 통해 창작자의 자화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쿠프랭/‘La Couperin’ from Pieces de clavecin, Book 4, order 21
라벨/거울(Miroirs) 모음곡
모차르트/환상곡 라단조, K.397
멘델스존/6개의 무언가 작품 19
멘델스존/엄격변주곡 작품 54

소프라노 박현진의 네 번째 독창회

일 시 | 7월 24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의 중견 성악가 소프라노 박현진이 네 번째 독창회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지역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유학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리스트 국립음대에서의 경험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특히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시절의 정서와 음악적 사유를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OLEG SHITIN과의 협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두 음악가는 오랜 기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음악적 교감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리스트의 곡 외에도 다채로운 성악 레퍼토리가 더해져 감동적인 무대를 완성하며, 박현진 특유의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표현력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신유정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7월 25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문화공감 010-8531-9930



다채로운 음색과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플루티스트 신유정의 독주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섬세한 해석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녀는 피아니스트 강한솔과 함께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 연주자는 완성도 높은 호흡을 바탕으로, 바흐의 깊이 있는 선율부터 프랑스 현대음악의 매력을 지닌 앙리 뒤티외, 낭만적인 분위기의 질 무케, 풍성한 음향이 돋보이는 샤를 마리 비도르의 감각적인 작품들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프로그램
 바흐/ '플루트 소나타'
 앙리 뒤티외/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질 무케/ 'La Flute de Pan'
 샤를 마리 비도르/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토크오페라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7월 3일(목) 오전 10:30, 오후 2:00
 4일(금) 오전 10: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단체관람 별도문의,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1, 3113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의 동명의 동화를 바탕으로 허퍼딩크가 작곡한 3막의 독일어 오페라로, 2022년부터 '토크오페라' 연출과 해설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다시 한번 연출을 맡고 객원지휘자 조용민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연주를 맡아 청소년들을 위한 눈높이 오페라를 선보인다. 특히 어린이가 주인공인 동화오페라인 만큼 올리는 공연예약 학해 어린이 합창을 무대에 올리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일 시 | 7월 11일(금) 오후 2:00, 12(토) ~ 13(일)
 오후 2:00, 오후 6:3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이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로 부산시민회관을 찾는다. 클래식 발레 3대 명작 중 하나로, 순수한 백조 오데트와 매혹적인 흑조 오딜의 1인 2역, 환상적인 백조 군무와 흑조 파드되르 유명하다. 마린스키 등 명문 발레단 출신의 실력파 무용수들이 참여하며, 전 세계 투어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온 발레단의 정제된 아름다움과 테크닉,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미학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고전미와 극적인 서사를 모두 갖춘 이번 공연은 발레 팬은 물론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예술제>
제36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 7월 16일(수)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부
 010-9147-2733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갈고닦은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 예술 축제 <예술제>의 발레 공연이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무대는 예비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이 빛나는 자리로, 다양한 무용 장르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 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는 '돈키호테'를 비롯해,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한국무용 '춘향전', 그리고 청소년의 내면을 섬세하게 풀어낸 창작 현대무용 'Inner Voice'까지 폭넓은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젊은 열정과 섬세한 예술성이 어우러진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브리 영화음악 FESTA

일 시 | 7월 19일(토)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필뮤직컴퍼니 010-8675-4559



현 시대 최고의 영화음악 거장으로 사랑받는 히사이시 조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지브리 영화음악 FESTA'. 지휘자 백윤학이 지휘하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교향적 모음곡을 비롯하여 '벼랑 위의 포뇨', '천공의 성 라퓨타',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등 애니메이션 외에도 '기즈 리턴', '키쿠지로의 여름' 등 영화주제곡을 통해 지브리 영화의 모든 순간을 만날 수 있다.

- 지휘/백윤학 • 바이올린/박진희
- 마림바/김하영 • 하프/박윤하
- 연주/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씨어터 링크 공연 **오늘밤, 스트레스는 잠들고**

일 시 | 7월 1일(화) 오후 7:30

울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울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세계 명곡부터 한국 창작곡, 오페라와 뮤지컬, 그리고 정열적인 탱고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내셔널현악앙상블과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깊은 울림과 대중적인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다. 친근하고 따뜻한 해설이 더해져 음악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연령과 음악적 배경을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무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일상 속 침표처럼 다가올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감미로운 선율과 따뜻한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제11회 **울숙도 오페라축제**

일 시 | 7월 5일(토)~7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울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울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5일 브릴란테 오페라멘트 **‘사랑의 묘약’**

개막작은 도니체티의 대표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순수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가 매력적인 여인 아다나사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소박한 가곡과 익살스러운 민요, 그리고 유명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지닌 이 작품은,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12일 오페리움 한울 **‘리골레토’**

이탈리아 만토바를 배경으로, 어릿광대 리골레토와 그의 딸 질다를 둘러싼 운명적 비극을 그린 베르디의 걸작이다. 공작의 유혹으로 시작된 사랑은 결국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으로 이어지며, 긴

장감 넘치는 드라마와 베르디 특유의 웅장하고도 섬세한 음악이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긴다.

19일 아트내상스 **‘팬잔스의 해적들’**

길버트와 설리번의 대표 희극으로, ‘결혼 한 번 못 해본 해적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무대다. 아트내상스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 빠른 템포의 패트송, 재치 넘치는 무대 구성과 의상이 어우러져 시종일관 유쾌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26일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바로크 오페라 ‘요정의 여왕’**

세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바탕으로 헨리 퍼셀이 작곡한 바로크 오페라로, 요정의 세계와 사랑의 혼란, 자연의 변화가 환상적인 음악과 마스킹(가면극), 화려한 의상, 연극적 요소와 함께 아름답게 펼쳐진다. 퍼셀의 음악을 통해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숲속의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7월 11일(금)~8월 1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지역예술단체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오페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래문화회관의 대표 기획 시리즈, ‘숲속의 오페라 페스티벌’이 관객을 찾아온다.

각기 다른 매력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무대로 꾸며진다.

11일(금) 코믹 가족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희극 오페라를 대표하는 로시니의 걸작으로, 재치 넘치는 이발사 피가로의 활약과 유머러스한 전개가 매력적인 작품이다. 활기찬 음악과 빠른 템포, 감각적인 무대가 어우러져 가족 관객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18일(금) 판타지 가족오페라 **‘신비한 시간여행’**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기 하루 전, 창제 과정

이 담긴 해례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편 2024년, 인사동에서 한글 활자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이탈리아에서 온 루나와 한국 친구 다미는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 연못에 빠지며 조선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루나와 다미는 해례본을 되찾기 위해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치게 된다. 역사와 판타지를 접목한 창작 오페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25일(금) 아이미치 델라 무지카 **‘돈 파스칼레’**

상속을 둘러싼 유쾌한 결혼 소동극! 재치 있는 노리나의 변장과 기지로 펼쳐지는 기막힌 연극한 판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도니체티의 희극 오페라 ‘돈 파스칼레’는 흥겨운 선율과 위트 넘치는 이야기로 유쾌한 웃음을 선물한다.

1일(금) 부산 캄머 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순수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가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의 묘약’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도니체티의 대표 오페라. 알고 보니 묘약은 단순한 포도주였고, 진짜 마법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익살과 감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랑 소동극으로, 유쾌한 마무리를 장식한다.

렉처콘서트 시리즈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영도에서 떠나는 예술여행 ‘바로크’**

일 시 | 7월 12일(토)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정기회원 7천원, VIP회원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202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예술과 지식을 아우르는 렉처콘서트 시리즈가 올해도 관객을 찾아간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배

울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2회차에서는 기악과 오페라가 눈부시게 발달했던 바로크 시대를 조명하며, 당시 예술의 흐름과 문화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해설과 함께, 카라바조, 루벤스, 벨라스케스 등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바흐와 헨델의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음악과 미술이 교차하는 예술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2025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 크리스티안 슈미트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

일 시 | 7월 12일(토)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콘서트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클래식부산 640-8826



비수도권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부산콘서트홀이 개관과 함께 마련하는 2025 파이프 오르간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주

인공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르가니스트 중 한명으로, 오르간의 깊이와 색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며 청중들에게 경이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슈미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헨델, 멘델스존, 비도르 등 바로크 및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들의 오르간 작품과 함께 루브리히, 슈나우스 등 다소 대중적이지 않은 레퍼토리를 통해 오르간 음악의 다채로운 색채를 조명한다.

제70회 예술공감 긍정 양육 콘서트

일 시 | 7월 15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
엄마 연주자들로 구성된 '맘케스트라'는 육아와 일상이라는 바쁜 삶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특별한 클래식 앙상블이다. 출산과 육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이 모여 만든 팀인 만큼, 그들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삶의 이야기와 진한 감정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엄마로서 겪는 기쁨과 고단함, 희망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할 예정이다. 클래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일상의 감정과 메시지를 전하는 '맘케스트라'의 무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수요상설공연 onStage 라틴밴드 겐츠와 함께하는 쿠바여행

일 시 | 7월 16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할인대상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부산 로컬 라틴 재즈 밴드 '겐츠(Getz)'가 세계절을 테마로 한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스탠 겐츠(Stan Getz)의 이름에서 따온

팀명처럼, 겐츠는 특유의 감미로운 분위기와 라틴의 열정을 결합한 음악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손(Son), 살사(Salsa), 차차(Cha Cha) 등 쿠바 전통 음악부터 듣기 편한 라틴 재즈, 그리고 라틴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각 계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들을 엄선하고, 라틴 전통 악기들의 소리와 이야기를 함께 전하며 관객과 더욱 가깝게 호흡할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쿠바 음악의 생생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이국적인 리듬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아미치 세펠레와 함께 하는 오페레타

All about Operetta - 부산

일 시 | 7월 17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 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부산에서 펼쳐지는 <All about Operetta>는 아미치 세펠레와 함께 오페레타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오펜바흐의 유쾌한 칸캉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은 갈란의 '집시공주'와 '마르차 백작 부인',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과 '쥬디타' 등 오페레타 대표 작품들의 명장면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차르다쉬와 반도네온의 특별한 협연,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스페인 자르주엘라의 감미로운 넘버들까지 오페레타보다 친근하고 뮤지컬보다 클래식한 오페레타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유쾌한 멜로디와 낭만적인 서사, 화려한 아리아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July Festival 여름의 제전

일 시 | 7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대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2만원, 할인대상 1만~1만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매년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클래식 축제 'July Festival 여름의 제전'이 올해는 부산 영도에서도 두 차례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2025년의 주제는

'스트라빈스키와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로, 러시아 현대 음악의 흐름과 그 정수를 집중 조명한다. 이번 공연은 일반적인 대형 무대가 아닌,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 위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첼리스트 심준호와 피아니스트 추원주가, 19일에는 피아니스트 최형록이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사전예매를 통해 선착순 100명만 관람이 가능하며, 클래식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수준 높은 연주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36회 굿모닝콘서트 청춘樂(락)

일 시 | 7월 25일(금)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포함)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
자연 속 정원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울속도문화회관의 대표 프로그램, 굿모닝콘서트 관객을 찾아온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어우러

지는 이번 무대에는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실력파 국악그룹 '갈'이 출연해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갈'은 전통 민요와 판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악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들에게도 흥미롭고 친근한 경험을 제공한다. 전통의 깊이는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무대 구성으로 국악의 가능성을 넓히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아침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일상에 작은 활력을 더해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제71회 예술공감 5話(5화): 최인하의 5가지 판소리 이야기

일 시 | 7월 29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소리꾼 최인하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전통 판소리 다섯바탕을 그간의 독창적인 감성과 해석으로 새롭게 풀어낸 현대판 판소리 공연이다. 고유의 소리와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적 언어와 무대미학을 가미해, 고전의 깊이를 지금 우리 삶과 감각에 맞게 되살려낸다. 특히 극적인 아니리와 감각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며, 기존의 전통 판소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한다. 익숙한 듯 낯선 이 무대는 전통을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는 새로운 감동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갈 것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판소리의 매력을 통해 관객은 더욱 가깝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 어쩌다 게스트하우스

일 시 | 6월 19일(목)~9월 2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다양한 캐릭터들의 폭발적인 개그와 케미가 돋보이는 웃음 차력쇼, 연극 '어쩌다 게스트하우스'. 한적한 시골, 네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동네 한가운데 자리한 정체불명의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없는데도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고 조용할 틈 없이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지는데... 삼겹살집에 이어 치킨집, 카페를 연달아 말아먹으면서 빗더미에 시달리다 촌구석으로 도망온 상식과 어눌한 한국어로 뻘뻘하는 외국인 직원 제시카, 여기에 무당, 락커 등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캐릭터들이 펼치는 관객과의 예상치 못한 티키타카와 허를 찌르는 반전과 유쾌한 위기 탈출극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7월 심현정의 11시 영화음악콘서트 나를 만든 영화와 음악들 I

일 시 |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1세기 대한민국 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음악콘서트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올해는 영화 '올드보이'(2004년), '아저씨'(2010년)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음악가 심현정이 호스트로 참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7월에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세 여인의 하루 동안의 삶을 미니멀 음악으로 색채를 덧입힌 필립 글래스의 영화음악 '디 아워스'를 비롯하여 스릴러의 교과서가 된 히치콕 감독의 '싸이코' 등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최고의 영화와 음악을 소개한다.

• 연주/부산 필름 뮤직 오케스트라

원조 코믹극 딜리버리

일 시 | 3월 27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무엇이든 배달해 주는 신개념 딜리버리 서비스를 배경으로, 상상도 못 할 다양한 배달 의뢰를 통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연극 '딜리버리'.

평범하지 않은 배달 의뢰로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딜리버리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하지만 이긴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배달들이 연이어 접수되는데... '딜리버리'에서는 위험천만, 사건사고, 우여곡절의 총집합 의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트러블, 연인과의 싸움, 부모님과 자식의 다툼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이해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다.

연극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 시 | 3월 7일(금)~8월 31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4:3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KNN시어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4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2022년 1월 종이책으로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국내에서만 30만 권 넘게 판매된 황보름 작가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2024년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휴남동에 서점을 오픈한 주인공 '영주'가 단골 손님들과 함께 고민과 위로를 나누며 용기를 얻는 이웃들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특히 원작을 제대로 살린 드라마와 귀에 쏙히는 가사, 아름다운 음악으로 초연부터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학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공포연극 두여자

일 시 | 7월 4일(금)~8월 31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4:30(월~화요일 공연없음)

NC백화점 부산대점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이수엔터테인먼트 1661-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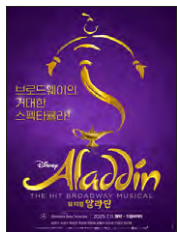


전국 누적관객 수 300만을 기록한 공포연극의 원조 '두여자'.

어느날 아침, 수리네 가족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청주정신병원 방화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환자 대부분이 사망했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역시 불에 타 숨졌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오고 지금까지 뉴스 속 방화 용의자와 쌍둥이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엄마는 경찰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혼란에 빠지는데... 대학로 호러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두여자'는 특히 기존 시각적 자극뿐 아니라 청각과 촉각 등 경계 없는 오감의 자극을 바탕으로 한층 새롭고 심화된 공포를 느끼게 해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일 시 | 7월 11일(금)-9월 28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7:30
토·공휴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7/16일·
7/30일·8/13일 오후 2:30, 7:30·
8/15일 2:00, 7: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8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201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객 2100만 명을 불러 모은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무대.

신비로운 아그라바 왕국에서 펼쳐지는 알라딘의 모험과 자스민과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그리고 지니와의 진실된 우정이 담긴 이야기로, 특히 ‘A Whole New World’, ‘Friend Like Me’ 등 거장 알란 멘켄의 세계적인 명곡과 놀라운 무대 연출, 관능적인 안무, 섬세한 일루전과 특수 효과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래문화회관 <Horror Stage>

호러 코메디 우리집에 왜 왔니

일 시 | 7월 19일(토) 오후 2:00, 5:00
20일(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호러 코미디 ‘우리집에 왜 왔니?’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유쾌한 휴먼 드라마다. 사랑에 상처 입고 삶을 포기하려던 ‘민지’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오합지졸 귀신들이 사는 집.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귀신들과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온도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자아낸다.

연출은 “사무치게 외로운 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 연극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과연 민지는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당신은 혼자자 아니다”라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작지만 깊은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일 시 | 7월 11일(금) 오후 7:30
12일(토)-13일(일) 오후 3: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신구와 박근형, 두 배우가 원캐스트로 선보이는 압도적인 연기와 독창적인 해석이 빛나는 무대 ‘고도를 기다리며’.

2023년 12월 서울 국립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후 2024년 5월 앵콜공연과 전국 21개 도시 투어를 통해 총 102회의 전석매진과 기립박수를 기록한 화제작으로, 특히 이번 무대는 두 배우가 함께하는 마지막 앙코르 무대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는 실체가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방랑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195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동래문화회관 <Horror Stage>

범죄스릴러 코마

일 시 | 7월 26일(토) 오후 2:00/5:00, 27(일)
오후 4:00, 29(화)~30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범죄 스릴러 ‘코마’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고드는 강렬한 작품이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외딴 산속 별장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소녀 해령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폭설이 몰아치던 어느 날, 말을 더듬는 낯선 남자 ‘남수’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는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미묘한 경계심과 불안 속에서 또 다른 방문자가 등장하고, 연이어 터지는 총성과 함께 공포는 극에 달한다. 심리적 서스펜스와 스릴이 정교하게 얹힌 문제작이다.

동래문화회관 <Horror Stage>

좀비스릴러 최저인간

일 시 | 7월 12일(토) 오후 2:00, 5:00
13일(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드림씨어터가 선보이는 좀비 스릴러. 폭력과 이기심이 팽배한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생존이 최우선이 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물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지만, 동시에 연대와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이 작품은 단순한 좀비물의 틀을 넘어, 우리가 과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아가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포 속에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독창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극한 상황에서도 끝내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은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

일 시 | 7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00, 20일(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문 의 | ㈜컬처박스 1588-2611



한국 뮤지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공연. 이문열 작가의 희곡 ‘여우사냥’이 원작인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5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된 후 2년 만인 1997년, 한국 뮤지컬 최초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했으며, 이후에도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이어가며 해외 누적 관객 18만 2,000명을 기록, 한국 뮤지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20주년부터 함께한 김소현, 신영숙이 명성황후 역을 맡았으며, 고종 역에는 강필석, 손준호, 김주택이, 흥계훈 역에는 양준모, 박민성, 백형훈이, 대원군 역에는 서영주, 이정열이 참여했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완다랜드**

일 시 | 7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1층) 6만6천원, S석(2층) 4만4천원
(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메이커쇼 1566-6818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하던 앨리스는 갑자기 나타난 시계도끼를 쫓아 완다랜드에 들어가게 되고, 무시무시한 붉은여왕의 케이크를 건드리게 되면서 쫓기게 된다. 그러던 중 완다랜드의 숲을 지키려는 하얀여왕으로부터 완다랜드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되는데, 과연 앨리스는 붉은여왕으로부터 완다랜드를 지켜낼 수 있을까. 루이스 캐럴의 원작을 새롭게 해석한 신선한 전개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신비로운 영상미와 환상적인 음악, 그리고 발레와 아크로바틱, 탭댄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무용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7월 5일(토) 오후 2:00, 5:00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2



세계적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의 동화를 가족발레로 제작한 '거인의 정원'. '거인의 정원'은 지난 1995년 창단 이후 부울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김옥련 발레단의 작품으로, 2014년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발레 공연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연, 생명, 사랑 등을 주제로 이기심과 집착, 욕심으로 오염된 인간성의 회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는 이번 작품은 특히 우리가 알던 발레에 한국무용,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비보이, K팝 댄스 등을 접목하여 기존의 발레와는 다른 무대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

일 시 | 7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백스코 오디오토리움**
입 장 료 | R석(1층) 6만6천원, S석(2층) 5만5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어린이 역사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두 번째 무대. 누적 600만 부 이상 판매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무대화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은 압도적인 스케일과 생동감 넘치는 영상, 탄탄한 구성으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청소년 시절부터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욱 화려해진 캐스팅과 새로운 음악 넘버는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제7회 부산발레페스티벌

일 시 | 7월 24일(목), 25(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1:30/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 25일(금) 일반 1만원, 26일(토) 오후 7:30 일반 3만원/그 외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제7회 부산발레페스티벌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발레 꿈나무들의 '유스발레'(24일), 청년 안무가들의 참신한 작품으로 구성된 '댄스 웨이브'(25일), 취미 발레인들의 무대 '월위발레'(26일, 오후 1:30), 최정상 발레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스페셜 갈라'(26일, 오후 7:30)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하는 4개의 무대로 구성된다. 클래식 작품부터 컨템포러리 발레까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워크숍, 댄스 필름 상영, 발레용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발레의 매력을 다채롭게 전한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일 시 | 7월 26일(토)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치매라는 쉽지 않은 소재를 유쾌한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내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70살 생일을 맞은 춘자씨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생일 소원을 빌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 춘자씨의 느슨해진 정신줄에서 빠져나온 영혼의 물고기가 그의 앞에 나타나고 영혼의 물고기와 시작된 기상천외한 모험 속에서 춘자씨는 상상과 현실, 추억과 회한 사이를 오가는데... 특히 록, 트로트, 보사노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춘자씨의 감정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치매를 앓고 있는 춘자씨의 환상의 세계가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처럼 무대 위에 구현된다.

영상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조진주&김규연 듀오 콘서트**

일 시 | 7월 2일(수) 오후 7:00
영도문화회관 정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입장료 무료(예매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듀오 콘서트 'SAC on Screen' 시리즈로 상영된다.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두 연주자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인 드뷔시, 풀랑크, 프코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해석과 섬세한 감성을 전한다. 각각의 곡마다 색채와 분위기가 뚜렷한 만큼, 두 연주자의 탁월한 호흡과 표현력이 더욱 돋보인다. 현장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낸 고품질 영상으로, 클래식 팬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2025 김경호 전국투어콘서트

My Favorite Rocker

일 시 | 7월 5일(토) 오후 4:00,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인디제이 010-2726-5569

2025 PEPPERTONES CLUB TOUR

일 시 | 7월 6일(일) 오후 5:00

금사각

입 장 료 | 스탠딩석 6만6천원

문 의 | NOL 티켓 1544-1555

2025 짙은 콘서트 소년의 여름

일 시 | 7월 19일(토) 오후 6:00

20일(일) 오후 5:0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입 장 료 | 전석 7만7천원

문 의 | ㈜록스타뮤직엔라이브 02-322-8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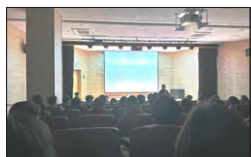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금)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연회비 2만원(1회 2만원)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유명 연주자의 영상을 통해 클래식

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민요, 가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체험과 함께 중창단 활동, 실황 감상, 음악회 연계 수업 등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가는 참여형 강좌다.

프로그램

바흐,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 등 독일 대표 작곡가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 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목) 오전 11:00

대연동 다송 뮤직 아트홀

입 장 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전 MBC PD이자 음악해설가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불면증·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감상과 서양음악사 특강, 가곡 부르기, 연주회 실황 영상까지 클래식 입문자도 즐길 수 있는 힐링 강좌다.

프로그램

'엔리코 모리코네' 대표음악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전막

에네스쿠 '루마니아 광시곡 1번',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7월 시네바움(CINEBAUM) 아카데미

일 시 | 매주(월) 오후 7:00 (목) 오후 2:00,

26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7월(월) 미술관의 역사와 부산시립미술관의 비전

• 서진석(부산시립미술관장)

14일(월) 겸재 정선 그림 읽기: 풍경의 변증법으로

• 최석태(미술평론가·전시기획자)

21일(월) 예술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포스트 휴먼과 비인간적 상상력

• 김석모(전 서울미술관 관장·미술사학자)

28일(월) 시네바움 스크리닝: 보이지 않는 영화들

• 상영작 : May and June(2023, 36분)

• 로케이션 | 한국·일본

• 감독과의 대화 | 박천현(May and June 감독)

• 진행 | 김영광(영화평론가)

7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오후 2:00, 7:00, (일)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국내 최대 규모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 보유처인 오페라바움은 공연 감상 전 예습과, 미니 콘서트 등 클래식과 가까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에는 다양한 음악 감상과 함께, 주말에는 해설과 자유 토론이 어우러진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라'(4일~5일), 베르디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11일~12일), 푸치니 '제비'(18일~19일),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25일~26일)

콘서트/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7일, 12일), 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14일, 19일), 바흐 B단조 미사(21, 26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28일)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14회 젊음의 축제

일 시 | 7월 5일(토) 예선 ~ 7월 6일(일) 본선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 장 료 | 무료(예약제 운영)

문 의 | 051-631-1377



<제14회 젊음의 축제>가 7월 5일(토) 예선, 6일(일) 본선으로 부산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경연대회로, 무용, 음악, 댄스, 연극/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예비 예술가들의 재능을 선보인다. 축하 무대로는 부산예술회관에서 창단한 청년합창단과 작년 대상 수상자 아피클래식의 소프라노 고은솔의 무대가 펼쳐진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장·상금과 함께 부산예술회관 공연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제200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음악에 살고 詩에 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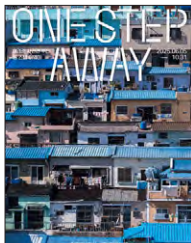
일 시 | 7월 19일(토) 오후 2:30
영광도서 문화홀 8층
입 장 료 | 200석 선착순 입장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
- 시낭송회 200회를 기념하는 축하공연
 - 출연/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정길연 시인 외 회원 23명
 - 초청음악가/ 가수 최성수, 소프라노 권소리, 클래식기타 고충진
 - 바리톤 배웅, 바리톤 한성권, 오보에 박종관, 테너 장원상
 - 사회/ 김병래 전KBS 아나운서부장
 - 연출/ 김옥균 전MBC PD

전시

이경준 사진전

일 시 | 6월 5일(목)-7월 31일(목)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 장 료 | 1인 1만8천원(6/4일까지 예매시 9천9백원)
문 의 | ㈜미디어앤아트 02-501-9544



▼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도시의 일상을 통해 일상 속 심표를 건넌 이경준 작가의 첫 국내 투어 전시.

서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뉴욕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가 활동 초기에 담아낸 부산의 풍경과 2024년 파리에서 완성한 신작까지 1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Be Craft!>

일 시 | 6월 30일(월) ~ 7월 6일(일)
부산예술회관 3~4층
문 의 | 부산예술회관 051-631-1377



▼ 도자, 금속, 목칠, 섬유 등 다양한 소재의 공예 작가 40인이 참여해 공예의 예술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조명하는 전시다. 나무, 흙, 금속, 유리 등의 자연 재료를 통

해 삶 속 예술을 구현하는 이번 전시는,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 공예가 지닌 고유한 미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공예를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감상과 더불어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주말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위빙'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과의 소통을 더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좋은 문화 체험이 될 것이다.

BNK부산은행갤러리 7월 전시

일 시 | 7월 10일(목) ~ 8월 4일(월)
(중구 광복중앙로 BNK부산은행 갤러리 13, 2층)
문 의 | 051-246-8975, 051-620-3813



▼ <I, ICH, NA>

7월 10일(목) ~ 17일(목)
성악가이자 화가인 스텔라 안의 두 번째 개인전 <I, ICH, NA>가 열린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넘나들며 쌓아온 정체성의 단면을 펜 드로잉과 아크

릴 작품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웃는 눈과 우는 입, 상상의 동물과 도시 풍경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 영어·독일어·한국어의 '나'를 병치한 전시 제목처럼, 다층적인 자아를 탐색하는 감각적 여정을 선사한다. '보는 그림'을 넘어 '읽히고, 들리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리고 그리고>

7월 18일(금) ~ 25일(금)
시니어 미술교육 전문 기관 나도아트의 두 번째 전시 <지금, 그리고 그리고>가 열린다. 이번 전



시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와 '표현'에 관한 이야기다. 수채화, 색연필화, 아크릴화, 데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삶의 조각들이 따뜻하게 펼쳐진다. 작품 하

나하나에는 시간의 결이 녹아 있으며, 그림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시도가 담겨 있다.



▼ <MIXT(Mixed+Craft)>
7월 28일(월) ~ 8월 4일(월)

공예가 품은 삶의 태도와 작가들의 철학을 공유하는 전시가 열린다. '다름의 조화'라는 주제로, 뚜렷한 개성과 기술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공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감동을,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발견을 안겨줄 이번 전시는 결과를 넘어 과정과 태도에 주목한다. 전통과 현대, 실용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공예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장영준 초대展 Hyper-Medium Codex

일 시 | 6월 20일(금)-7월 12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끊임없이 복제되고 갱신되는 이미지의 바다위를 떠다니며 그 표현을 관찰하고 기록해온 장영준 작가 초대전.



그림이 말을 걸 때

이수정 지음
리스크 / 1만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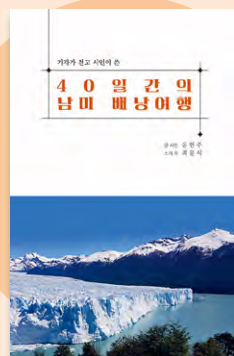
‘빨리-많이-대충’ 감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천천히-깊게-대화하듯’ 그림을 보라고 권하는 책. 예술 교육 콘텐츠 기획자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해 온 이수정 작가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낸다. 이 책에는 30명의 화가와 50여 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신화, 문학, 시대 배경과 연결되는 풍부한 예술 서사가 펼쳐진다. 고흐의 고향, 프리다 칼로의 상처, 미켈란젤로의 고뇌, 고야의 절망... 그림 속 예술가들의 감정과 흔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있다. 저자는 미술사 속 익숙한 그림뿐 아니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화들까지 소개하며 독자에게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예술’을 제안한다.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화가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등장한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법이 없다. 작가는 그림을 설명하는 대신 그림이 가진 서사를 길어 올리고, 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따라간다. 그렇게 그림이 독자들 곁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어 들어온다. 단지 예술사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감정의 결로 화가를 고른 저자의 큐레이션 자체가 이 책의 힘이다.



이유가 있어서 명곡입니다

장금 지음
북피움 / 2만 6,000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곡만큼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곡이다. 제목까지도 감미롭다. 그런데 이 곡의 정식 명칭은 ‘바가텔 25번 가단조’이다. 그 아름다운 선율에 이런 미묘한 타이틀이라니 의외다. 이 곡은 베토벤이 죽고 나서 40년 만에 발굴되어 사후 주행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클래식 음악 사상 최고의 대박을 터뜨렸다. ‘엘리제’가 대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지금도 수많은 논쟁과 가설이 난무하고 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이 곡에는 ‘치밀한 완벽주의자’ 베토벤의 향기와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했던 청년 음악가 베토벤의 삶이 담겨있다. 이 책은 클래식 음악사를 주름잡았던 가장 대중적인 피아노 명곡 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팟캐스트 ‘클래식 빵’에서 친절하고 유쾌한 클래식 해설자 ‘짱언니’로 사랑받고 있는 저자는 클래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클래식 음악 뒤의 이야기와 ‘명곡의 이유’에 주목했다. 월광 소나타, 터키 행진곡, 캐논 변주곡, 트로이메라이, 결혼행진곡, 유모레스크, 녹턴, 강아지 왈츠 등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20곡의 피아노 명곡이 아름다운 이유는 따로 있다.



40일간의 남미 배낭여행

윤현주 글·사진 / 최윤식 스케치
다큐북스 / 2만 원

남미는 지리적인 면에서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가장 먼 곳에 있다. 계절과 밤낮도 반대이다.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쉽게 갈 수 없고, 그만큼 더 궁금한 곳이다. 그래서 남미 여행은 한국인에게 ‘여행의 종결판’이자 ‘로망’이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5~6년 새 남미를 찾는 여행객이 급증 추세에 있다. 남미 관련 여행 책자도 많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윤현주 시인이 쓴 이 책은 현장성과 역사성, 그리고 감수성이 절묘하게 버무려진 탁월한 기행문이다. 남미의 핵심 여행지만을 골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이 책의 부제가 ‘기자가 걷고 시인이 쓴’이란 문장이다. 저자는 35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 언론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취재기자의 현장성과 시인의 감수성이 잘 버무려져 있다. 저자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남미의 어디쯤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남미 음악 ‘누에바 칸시온’을 감상하는 대목은 독자를 그 속으로 끌어당긴다. 빼어난 그림 실력을 자랑하는 최윤식 건축가의 현장감 넘치는 스케치가 장소마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여행기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진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과 (재)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김영욱)은 6월 19일(목),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정기회원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공연 콘텐츠의 유통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오는 6월 28일(토) 백양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본색(本色)' 공연을 시작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공동 기획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무용을 지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재)부산문화회관과 커넥트현대가 지역예술생태계를 위한 협업 전시



(재)부산문화회관과 커넥트현대가 손잡고 부산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 <ART WALK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신진 및 원로 작가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모델로, 커넥트현대와 시민뜨락추제를 연계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공과 민간(커넥트현대)이 함께하는 '예술 동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선정된 ▲갤러리 맥화랑 ▲갤러리 아트숲 ▲대안공간 영주맨션 ▲아이테르 범일가옥 등 전시 공간 네 곳과 협업, 이들 전시공간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커넥트현대(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1~2층 유희공간에서 회화와 설치미술 중심의 기획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 본 전시는 선정 공간 중 1곳과 협력해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미디어아트 및 설치미술 중심의 기획 전시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시립예술단 정년퇴임식 진행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부산시립예술단 2025년 상반기 단원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상반기 퇴임하는 단원은 교향악단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정선화(트롬본) △강내형(악기담당), 국악관현악단 △엄애리(거문고) △강영진(대금), 합창단 △박성혜(알토) △최기호(베이스), 무용단 △이성원 등 8명이다.

가족과 동료 300여 명이 참석한 퇴임식에서는 부산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와 차재근 대표이사의 송별사, 부산시립예술단 축하무대 등 재임기간 헌신한 퇴직 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간 정년퇴임자에 대한 축하가 예술단별로 간소히 진행되어 왔으나, 긴 시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온 부산시립예술단 정년퇴임자에 대한 예우와 부산시립예술단의 전통과 품격에 걸 맞는 정년퇴임식을 개최하고자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부산시립극단, 제16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참가



국공립 극단들의 축제의 장 '제16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2010년을 시작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과 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경주시립극단의 창작극 '올화'를 시작으로 부산시립극단 외에도 포항시립연극단, 경산시립극단, 목포시립극단, 충북도립극단, 경남도립극단, 대구시립극단 등 전국 8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해 릴레이 형식으로 무대를 이어나간다.

부산시립극단은 7월 12, 13일 작품 '신데렐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페스티벌은 창작극부터 재해석된 고전극까지 다양하게 구성한 지역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함께해 더욱 빛났던 무대

2025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바리데기'

글 손보미 부산진구 전포대로

연극, 무용, 연주, 합창. 고유 영역이 있는 예술단을 같은 무대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시작된 부산시립예술단의 연합공연 '바리데기'는 합창과 연극, 연주, 무용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한 영역이 튀지 않도록 톤을 맞췄기 때문일 것이다.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는 공연은 한 명이라도 어설프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연합공연 '바리데기'는 그런 우려 없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빈틈없이 꽉 채우기에 충분했다. 휘날리는 천으로 바다의 파도를 표현하고 사람들의 몸짓과 절규만으로 화탕지옥의 모습을 관객에게 실감 나게 전달했다. 극단의



배우들이 각각의 사연을 관객에게 소개하면 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은 에피소드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 극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합창단의 노랫말을 무대 양쪽의 모니터를 통해 자막으로 띄워주는 부분도 관객의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6개의 예술단이 원팀이 되어 보여준 '바리데기'는 연극과 뮤지컬에만 국한되어 있던 나의 취향을 넓혀준 뜻깊은 공연이다. 언젠가 꼭 다시 한번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

유쾌한 음악과 따뜻한 감동이 있었던 가족 뮤지컬

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글 최유리 동래구 총렬대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세 아들을 위해 고전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를 관람하고 왔다.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신선한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어린이 뮤지컬이다. 원작의 파란 요정을 '파란 마녀'로 바꾸어 거짓말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내며, 남녀노소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무대에 등장한 인형들과 신나는 노래, 생생한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에 아들은 금세 몰입했다. 특히 아들은 피노키오가 거짓말로 인해 고래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16곡의 다채로운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 모두를 무대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가정의 달에 아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Incorean Symphony Orchestra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 윤상운

비올라 | 김남중

클라리넷 | 백동훈

Carl Maria von Weber
Euryanthe Overture, J.291

Max Bruch
Concerto for Clarinet & Viola with Orchestra in e minor, Op. 88

J. Brahms
Symphony No.3 in F Major, Op. 90

2025. 7. 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북유럽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프랑스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영국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외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문화 | 대극장 2025. 7. 5.(토) 11:00am,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연출 | 진영섭 • 원작 | 안영달 • 대본 | 윤희경
※ 24개월 이상 관람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두 광대의 여정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Glob)>**

문화 | 중극장 2025. 7. 16.(수) 11:00am, 6: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추천 연령 6세 이상)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Lumens)>**

문화 | 중극장 2025. 7. 19.(토) 11:00am,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문화 | 대극장 2025. 7. 17.(목)-18.(금) 7:30pm,
19.(토) 2:00pm,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출, 재구성 | 김지용 • 원작 | W. 셰익스피어

※ 7세 이상 관람(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권장)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종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성민제&고의석**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빵아>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물에 관한 의심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 | 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 | 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 | 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2회 정기연주회

여름, 목가

부산콘서트홀 2025. 7. 10.(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폴 루이스



부산시립합창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운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홀로홀춤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매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차 측 협의에 한함)

VIP SPECIAL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회관 기획
(전사)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이용권 할인(10~30%)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종료**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폰하모닉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종료**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종료**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종료**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김기호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김홍재
김홍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삼명무역 대표
(전)연제구의장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팀(607-6072)

류용주
서현석
손명찬
신한춘
윤철원
이성규
이수영
이은석
이진영
임정덕
장세비
정문흠
정연택
정용환
조기종
허정은
황성환

삼신교통(주) 회장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주)정우 대표이사
김해주차장 대표
(주)유한 대표이사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디씨엘(주) 대표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계승균
김 철
김말순
김영수
김종부
김진홍
김희규
도재철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박혜빈
박홍근
성원기
손혜경
안금주
안진우
양은진
이경철
이상수
이성임
이수민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임은자
정명선
정민섭
정의화
조성락
조종래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부산대학교 교수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다올테크 대표이사
동우개발(주) 회장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명인제약

대동병원 이사장
세종기획 이사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삼강종합건설(주)
손내과의원 원장
하나유치원 원장
경성대학교 교수
세무법인 인성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엘가 대표
굿엔프랜드주식회사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회 원장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전)국회의장
속편한내과 원장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2025 꿈꾸는 예술학교

신데렐라

: 너의 뜻대로

2025. 6. 6.(금) ~ 7. 6.(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일반공연 2025. 6. 6.(금) ~ 7. 6.(일) 공휴일 및 주말 10:30, 14:00

평일 단체공연 2025. 6. 10.(화) ~ 7. 4.(금) 10:30 *월요일 공연없음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051-607-6000 ARS 1번 **티켓** 전석 12,000원 **관람연령** 전연령 관람가(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대본·작사 김영화 | **작곡** 이영재·정유진·유인영 | **연출** 김지용

출연배우 이현주·김은희·염지선·황창기·이혁우·김은옥·서보기·오희경·채민수·이태성·조정우·박규한·김성열·윤영식·이수현·전용균·김수희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Busan City Arts Company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6. 26.(목)~7. 16.(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7. 25.(금)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6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1142	010-****-3102	010-****-0864
010-****-5981	010-****-5779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 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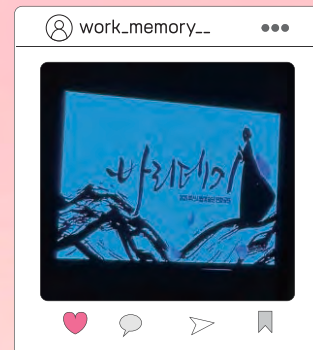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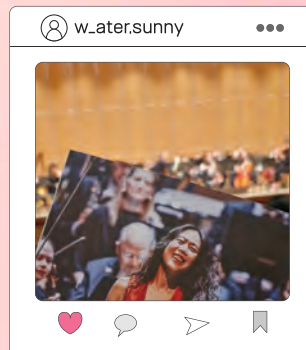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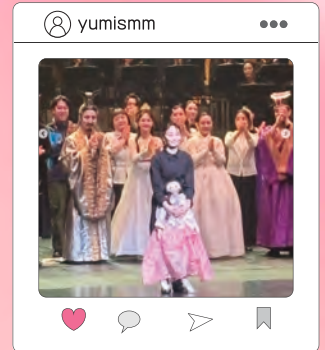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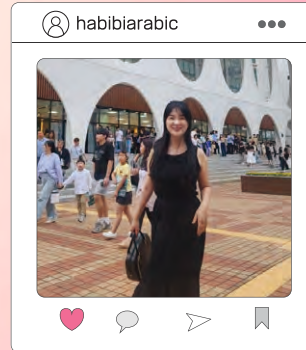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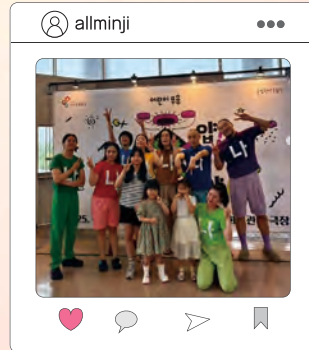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2025 SUMMER FANTASY

Chorus of Dream

A. Copland Fanfare for The Common Man

김예은 Unchained Melody

J. Rodrigo Aranjuez Guitar Concerto

A. L. Webber A Concert Celebration 등 다수



부산시립합창단

지휘 이기선

협연 김경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5. 7. 24.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지휘 및 해설 백승현



플루트 조성현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25. 7. 24.(목) 19:30 / 7. 25.(금)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여름, 목가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J. Brahms / Symphony No.2

*

지휘 홍석원 / 피아노 폴 루이스

622

2025.7.10.(목) PM 7:30
부산콘서트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Enjoy Your Time at LOTTE -Premium outlet DONG BUSAN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구찌·버버리·몽클레르 등
약 500여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쇼핑 경험을 통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